

함께 꾸는 꿈

(격월간 발행) 제146호 2023 11, 12월호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http://www.civilpower.org>



용정 광명중학교 친구들 (문익환, 장준하, 윤동주)_조기현 시인 투각

04	권두언	우리가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류영준
05	기획	2023년 대구참여연대 회원 설문조사 결과
16	국제	극장에는 가슴 뛰는 삶과 가슴 설레는 시간이 넘쳐난다 김형진
20	노동현장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정규직화 투쟁 현장 이소희
22	Art & Culture	우리 동네에는 괴물이 산다 - 영화 <괴물> 김병호
24	젠더비평	페미니즘 혐오와 집계손사태 남은주
27	청년비평	청년인지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조영태
30	칼럼	거대 양당의 선거 카르텔 깨기 김윤상
34	이달의 회원	최나래 전 상근활동가 김선희
36	애! 이 사람	원유술 전 공동대표 김영화
42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44	재정보고	
45	회비납부명단	

표지이야기

<“이것은 수박이 아니다(This is not a watermelon).”>

누가 봐도 수박인데 ‘수박이 아니다’라니 당연하게도 ‘왜?’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수박이 아니다.

위 이미지의 원작은 팔레스타인 작가 슬리만 만수르의 작품<“이것은 수박이 아니다(This is not a watermelon).”>에서 착안되고 응용된 이미지이다.

처음 이 이미지의 원작자인 만수르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상징한 예술작품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경고를 받은 후 오히려 팔레스타인 국기의 색상을 그대로 가져와 수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위 이미지를 착안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흡사 수박의 한 조각 같은 팔레스타인 국기의 이미지를 통해 역사의 진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이미지는 유사하게 표현된 여러 이미지들로 수없이 복제되어 틱톡을 비롯한 여러 sns를 통해 많은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이 질문들을 이어가고 있다. 작금의 세계사가 가진 거대한 부조리에 비해 한없이 초라해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진정한 예술의 힘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화가 김병호>



우리가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류영준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누군가는 동해안을 찾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인근의 동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TV나 휴대전화로 맞이하기도 했을 거고, 어떤 분은 해맞이 그게 뭐라고~ 하며 무심히 넘겼을 겁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든 아니든 많은 분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소원을 빌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의 원하는 바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사회 전 분야에서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경제 위기, 청년 위기, 심화하여 가는 양극화, 무너지고 있는 돌봄과 교육, 사라진 공정과 상식, 사상 유례없는 권력에 심취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여기에 더해 해법 없이 퇴행과 불통과 독주만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정……. 그러나 올해도 딱히 달라지거나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삼국지연의에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라는 말로 절박함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적벽대전에서 유비에게 패한 조조가 후퇴하던 중 부하들이 “길은 좁은데다 새벽 비에 패인 진흙 구덩이에 말굽이 빠져 갈 수가 없다.”라고 하자 조조가 호통치며 한 말이죠.

우리가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바뀌는 게 없고,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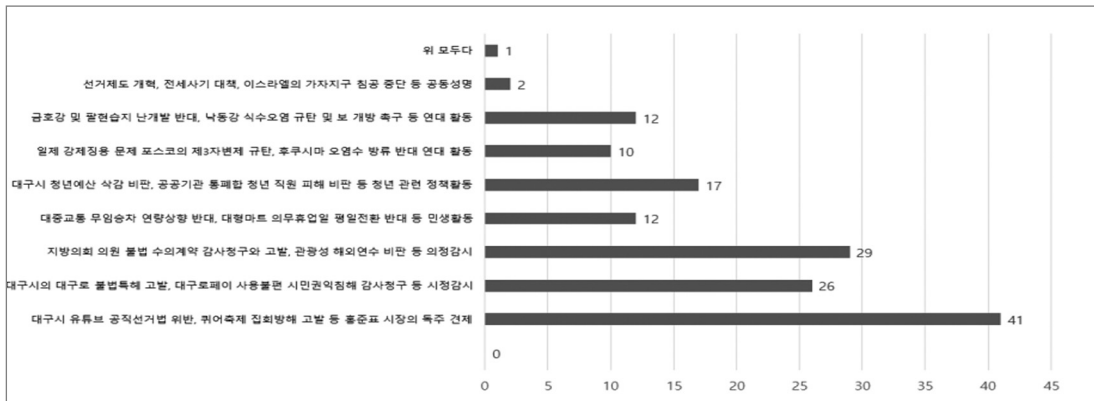
회원 여러분, 변화의 길에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난해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2023년 대구참여연대 회원 설문조사 결과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2월 28일 제26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이 대구참여연대의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2월 2주간 진행한 온라인 조사에 55명의 회원이 응답해 주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2023년 가장 잘한 활동은 '홍준표 시장 고발, 감사청구 등 대구 시정의 퇴행과 폭주 견제 활동'
- 대체로 긍정 평가,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던 것은 '시민과 회원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 대구사회에 영향력 다소 있지만 '언론보도가 적거나', '활동자체가 활발하지 않아서' 제한적
- 주요임원과 상근활동가의 정당가입과 선거출마 금지 지속 하되, 후보 지지 선언 등 부분적 유연성도 필요
- 정부지원 받지 않고, 기업 후원에 의존하지 않은 재정 방침도 유효, 그러나 부분적 유연성도 필요
- 가장 큰 문제점은 '회원의 고령화와 청년세대의 참여 부족' 및 '상근활동가 총원과 활동 재정 부족'
- 참여 의향이 가장 높은 것은 '강연,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과 '회원 동호회 모임'
- 가장 필요한 모임은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공동체 활동', '작은권리찾기' 관련 모임
- '홍준표는 2점, 윤석열은 1점' 10점 만점 기준 회원평가는...
- 가장 주력해야 할 활동 방향은 역시 '시의정 권력감시'와 '풀뿌리자치 및 청년세대 조직화 등 시민역량 강화'
- 가장 집중해야 할 대구사회의 문제는 '낮고 부패한 정치행정'과 '빈곤, 실업, 노후 등 사회안전망 부실'

1. 대구참여연대 2023년 활동 중 가장 잘한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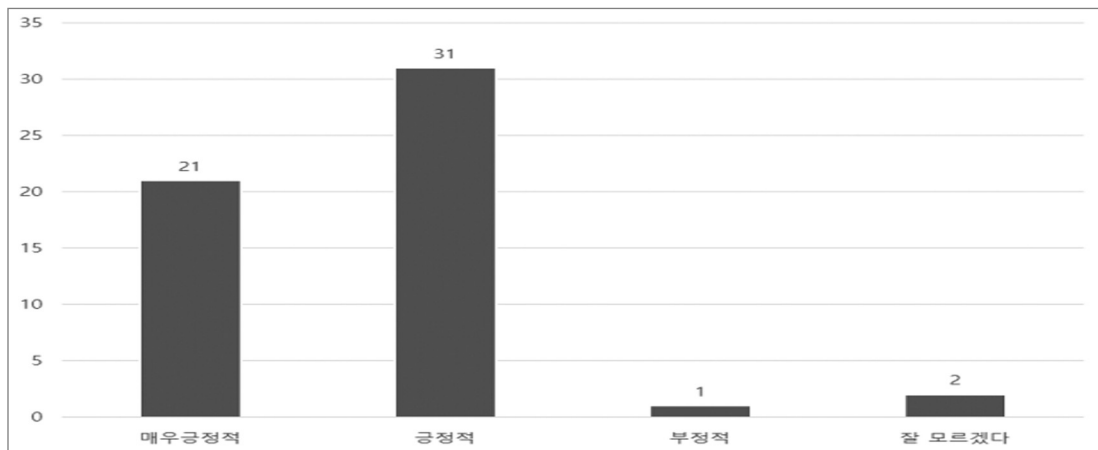
- 2023년 가장 잘한 활동은 '홍준표 시장의 독주견제(41건)'로 집계됨(74.5%)
- 다음으로 높은 결과는 지방의회 의정감시 29건(52.7%), 대구시 시정감시 26건 (47.3%) 순으로 나타남

2. 대구참여연대의 2023년 활동 중 아쉽거나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 주로 홍보 부족, 시정 및 의정 감시 미흡, 회원 참여 저조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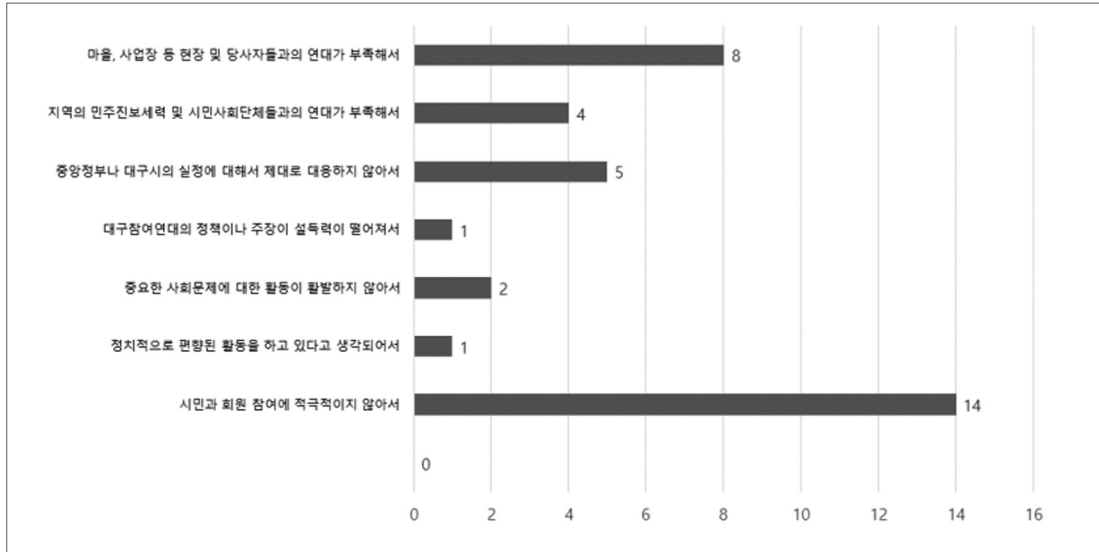
회원/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모임, 후원금 모금 등에서 갈수록 회원 참여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 재정 독립이 늘 걱정/부족한 활동가 인원과 그에 따른 업무 가중... / 신규회원 유입 전략 필요 - 회원모임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마을별 회원모임이 필요해요. - 신규회원을 유입할 전략이 필요해요.
홍보/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과 시민에게 눈에 띄는 활동이 생각나지 않아요. - 언론에 노출이 많지 않네요.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도록... -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가 부족해요. 활동 방향성과 내용을 알리고 공감대 만들어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이지 않음/집중성과 전문성 필요 -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너무 치중... -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 폐지 문제,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등 종교 갈등에 소극적 - 시정 감시, 예산 낭비, 시민 알권리 문제 적극적 활동 필요 - 늘어나는 아파트 숲 답답...적극적 대응 필요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정부 실정 강력 대응해야 - 시국상황 반영 대중강연이나 시민강좌가 없어서... / 좀 더 큰 정치적 퍼포먼스 필요 - 특정 정당만 비난하는 편향 심화/ 정치적 중립 지켜야

3. 대구참여연대의 활동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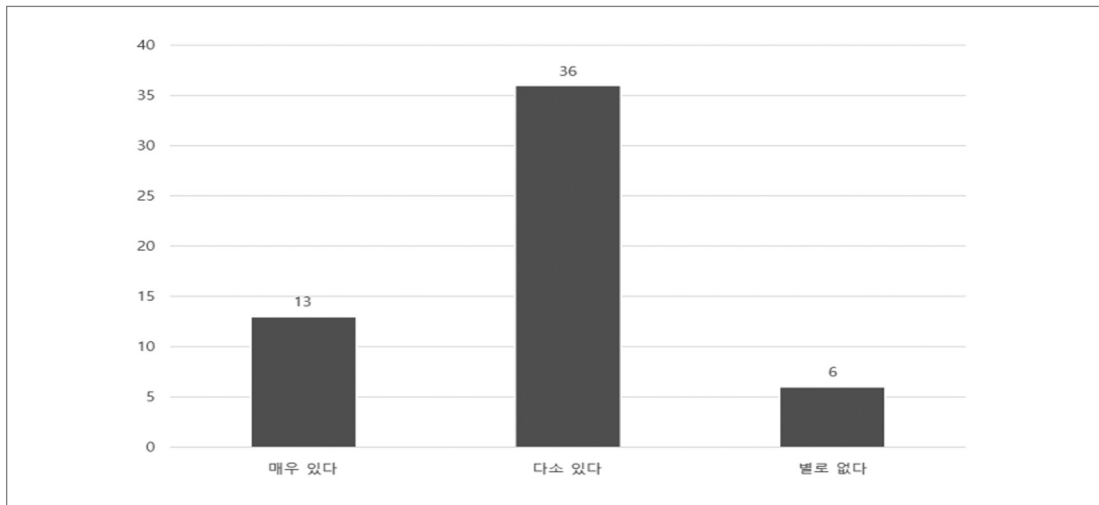
- 대체로 대구참여연대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
- 긍정적 56.4%(31건), 매우 긍정적 38.2%(21건)

3-1. 부정적이라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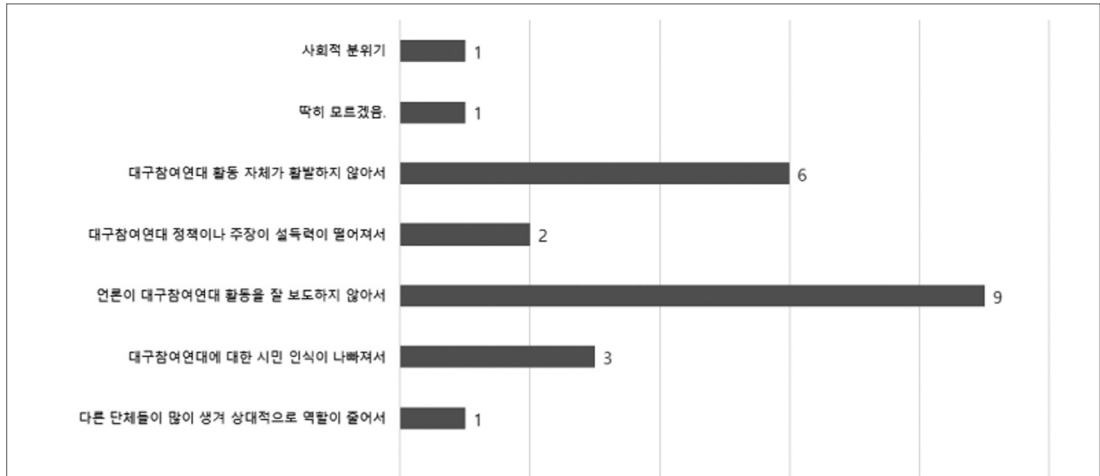
- 부정적 평가에 가장 큰 이유는 '시민과 회원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로 82.4% 응답(14건)
-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마을, 사업장 등 현장 및 당사자들과의 연대가 부족해서' 47.1% (8건), '중앙정부나 대구시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29.4%(5건)

4.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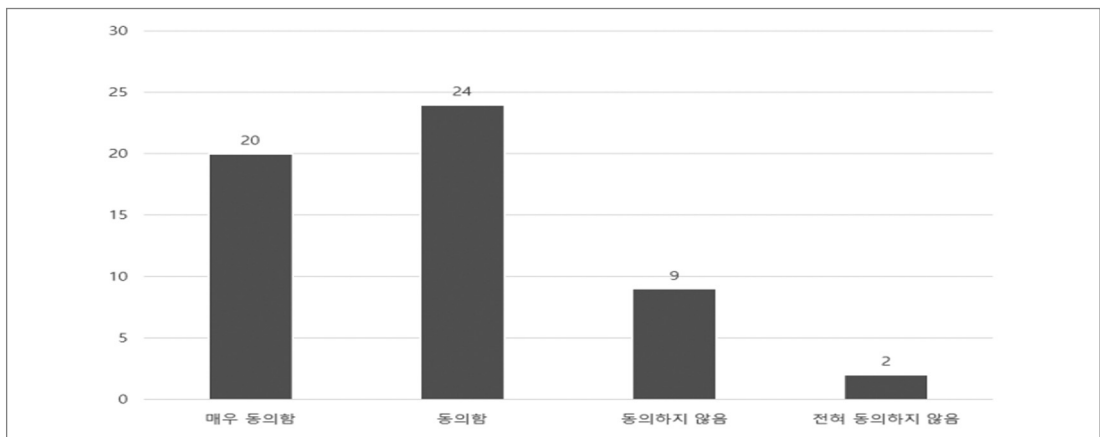
- 응답자 65.5%는 대구참여연대의 영향력이 '다소 있다'로 평가
- 응답자 23.6%는 '매우 있다'로 평가했으며, 별로 없다는 응답은 10.9%

4-1. 대구참여연대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아서' 56.3% (9건)
-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대구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가 37.5% (6건)
- 대체로 언론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활동 저조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5. 대구참여연대는 '주요임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각 부서의 장 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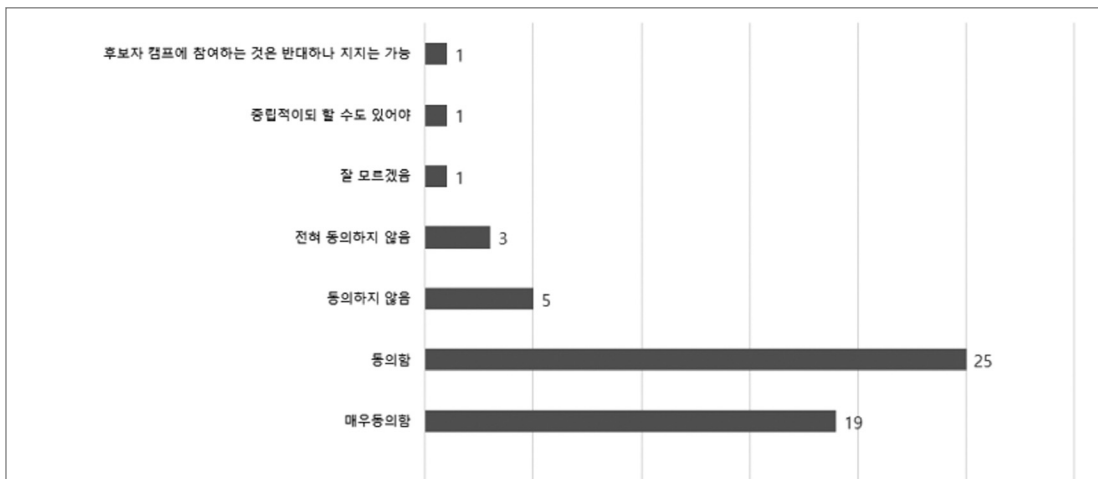


- 정당가입 금지에 대해 동의함 43.6% (24건), 매우 동의함 36.4% (20건)으로 대부분 정당 가입 금지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16.4% (9건), 전혀 동의하지 않음 3.6% (2건) 등 약 20%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5-1. 위 질문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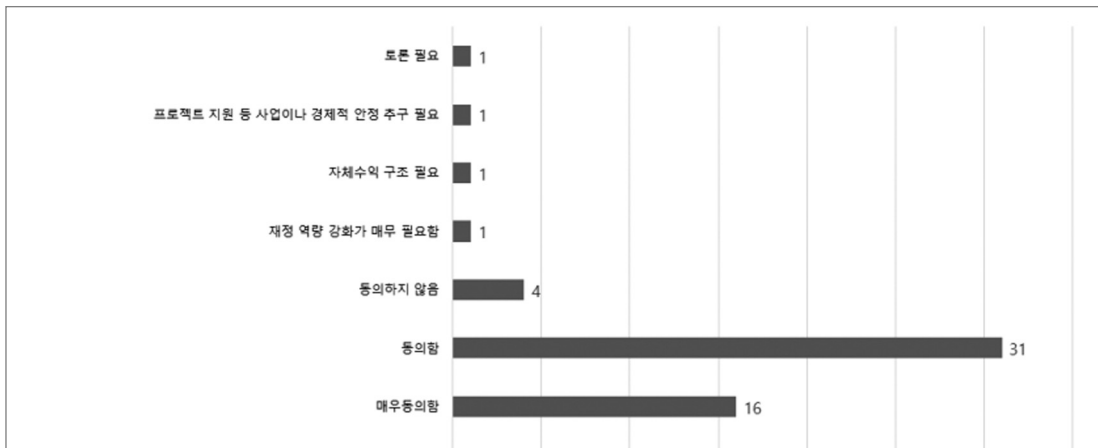
-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함(5건)
- 정치적 의사 표현은 기본권이며 당직은 어렵더라도 가입은 가능하게 해야 한다(4건)
-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과 공동대표만 정당 가입 금지 의견도 있음

6. 대구참여연대 주요임원과 상근자는 참여연대 직책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이나 정당 및 후보자의 캠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응답자 45.5% (25명) 동의, 34.5% (19명) 매우 동의로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의하지 않음 9.1% (5명), 전혀 동의하지 않음 5.5%(3명) 등 약 14.6%는 동의하지 않음

7.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의 후원금(개인 후원금과 회지 광고비 제외)도 거의 받지 않고,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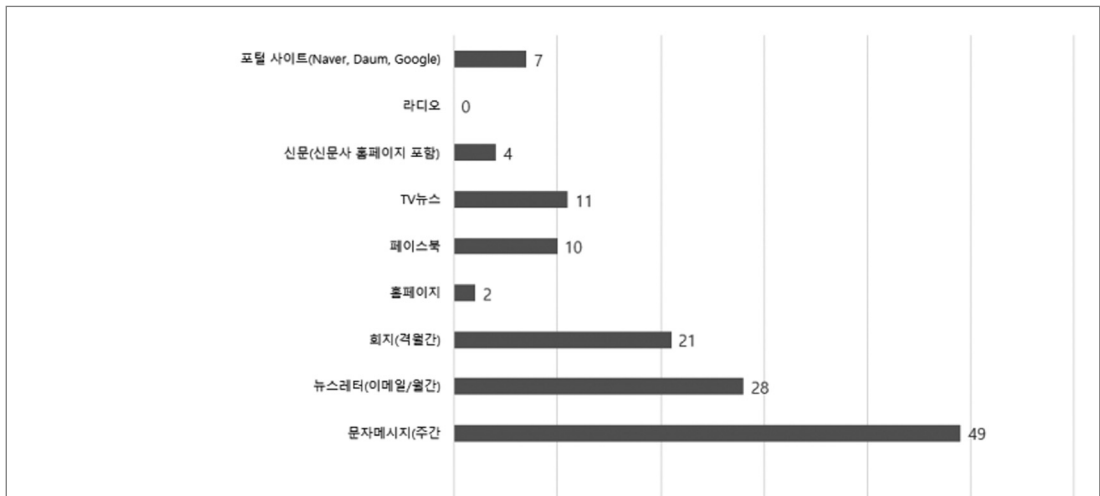


- 응답자 56.4% (31명) 동의, 29.1% (16명) 매우 동의로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 동의하지 않음 7.3% (4명)이며 이외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건씩 있음

7-1. 위 질문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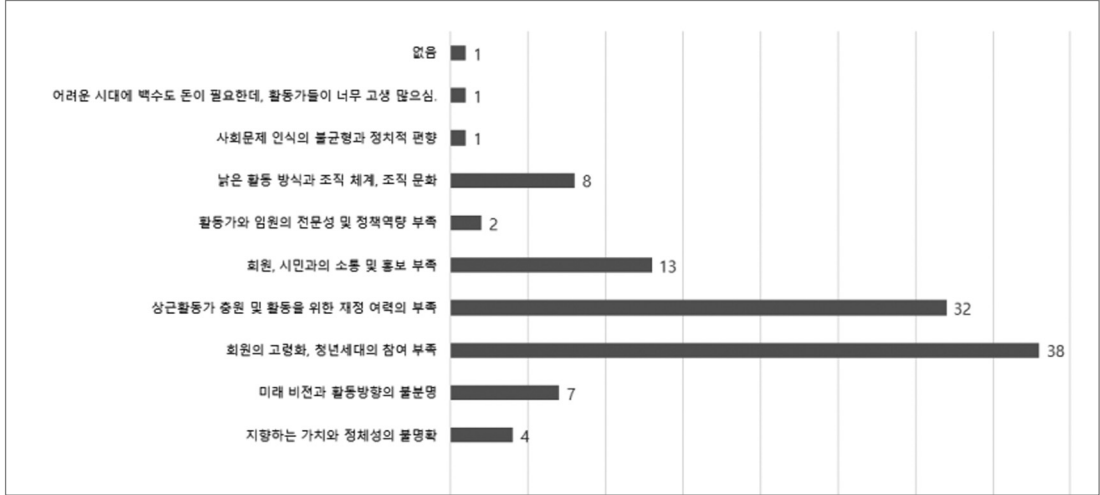
재정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상근자의 희생이 크다. 자립 자활을 위해서 전향적 변화를 고민하기 바람
재정자립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있어 보임
어떻게든 자금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정책 중심으로 협업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 지원도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공익활동 모금회 같은 조직에서 받으면 좋겠음.
재정 원칙은 동의. 좋은 사회와 더 많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회원확보, 회원교육에 참신함이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심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는 참여를 진행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원금 이외 재정마련 필요.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자체사업 필요 후원으로는 한계가 분명
나의 행복도 지켜야 사회적 행복도 지킬 수 있으므로 경제적 뒷받침은 꼭 필요. 정부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

8. 대구참여연대의 활동 소식을 주로 접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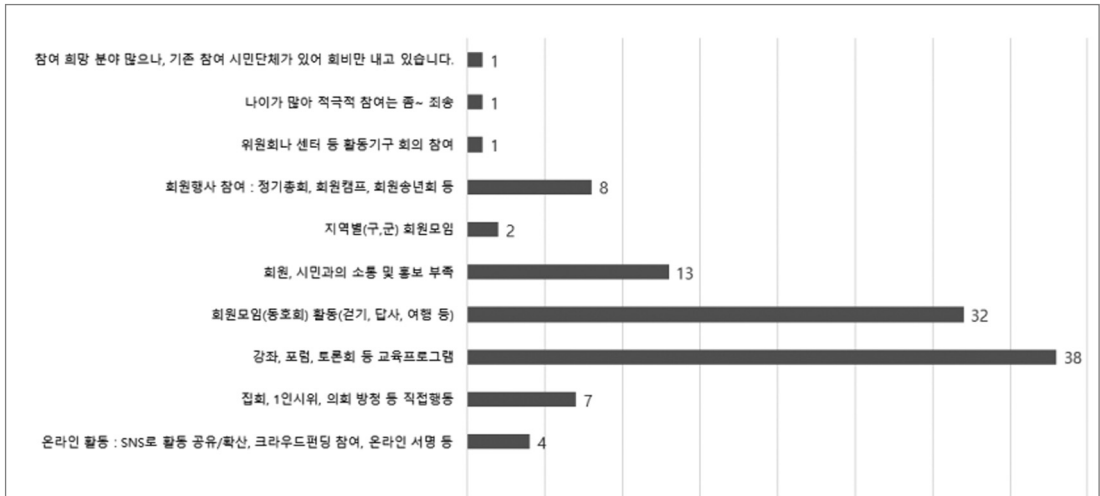
-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문자메시지로 89.1% (49건) 응답
- 다음으로 높은 매체는 뉴스레터 50.9% (28건), 회지 21건 (38.2%)

9. 대구참여연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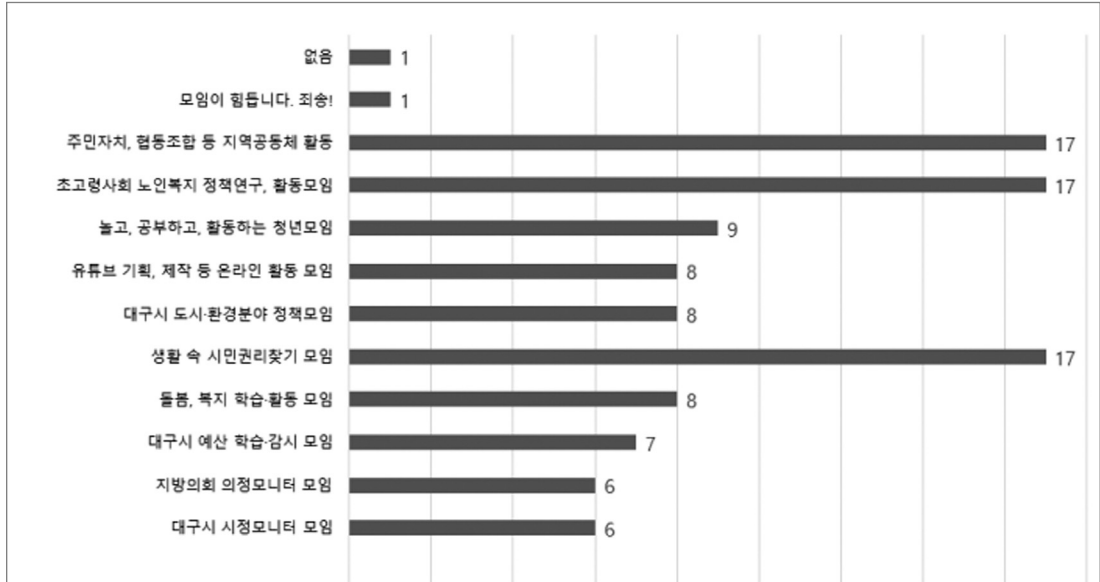
- 가장 높은 응답은 회원의 고령화, 청년세대의 참여 부족 69.1% (38건)
-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상근활동가 충원 및 활동을 위한 재정 여력의 부족 58.2% (32건), 회원, 시민과의 소통 및 홍보 부족 23.6% (13건)

10. 아래의 활동 중 회원님께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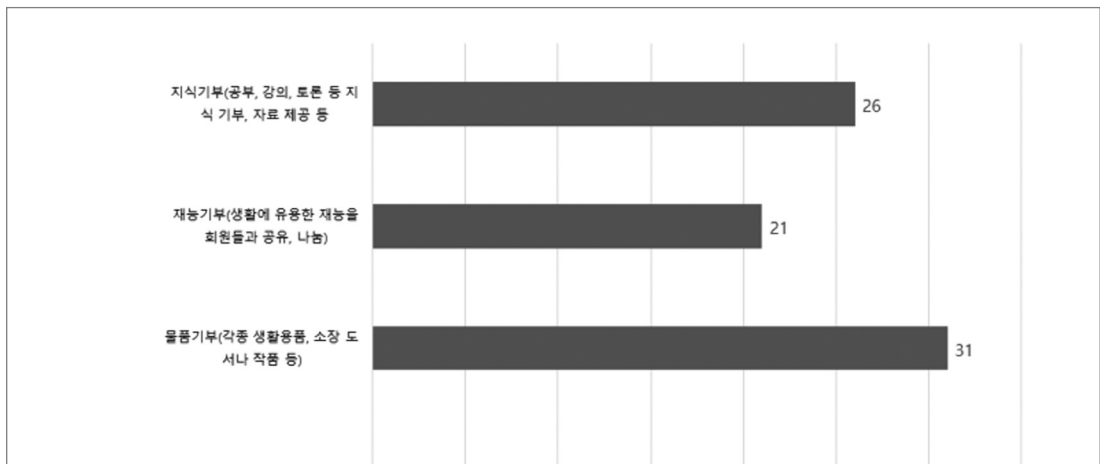
- 가장 높은 응답은 50.9% (28건) 강좌, 포럼, 토론회 등 교육프로그램 참여- 다음으로 온라인 활동 45.5% (25건), 회원모임(동호회) 활동(걷기, 답사, 여행 등) 27.3% (15건) - 가장 낮은 응답은 '위원회나 센터 등 활동기구 회의 참여'로 23.6% (13건)

11. 대구참여연대에 아래와 같은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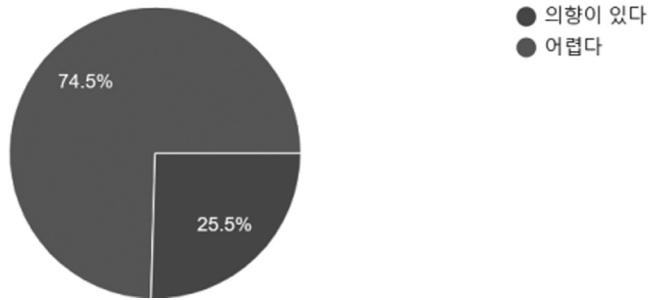
- 가장 높은 응답은 '생활 속 시민권리찾기 모임',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정책연구, 활동모임', '주민자치,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각각 30.9% (17건) 응답

12. 대구참여연대를 위해 아래의 기부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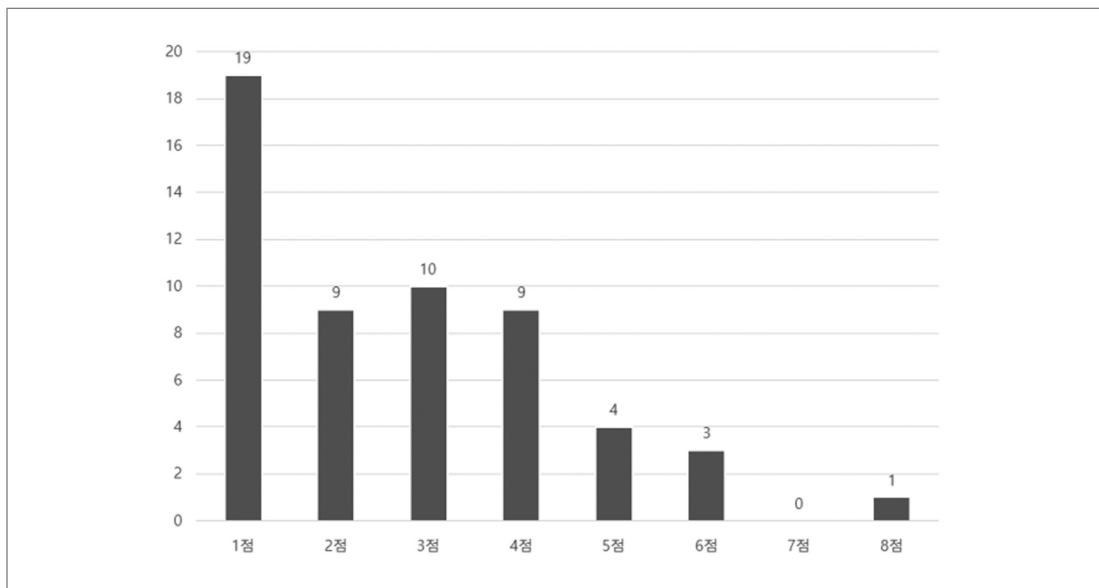
- 기부할 의향 응답은 총 55건으로, 물품기부 56.4% (31건), 지식기부 47.3% (26건), 재능기부 38.2% (21건) 순으로 집계

13. 대구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가 부족합니다. 자원활동(월1회, 평일, 반나절 이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자원활동은 74.5% (41명) '어렵다'로 응답, '의향있음'은 25.5% (14명)으로 자원활동은 대체로 어려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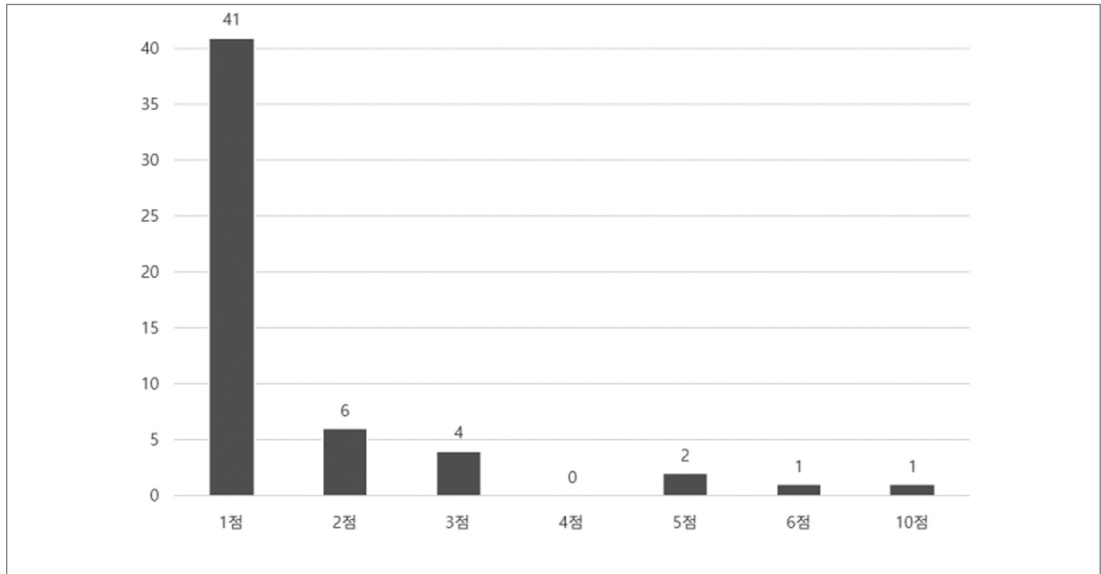
14. 흥준표 시정평가 점수를 매겨주세요.



- 34.5% (19명)가 흥준표 시정평가에 1점을 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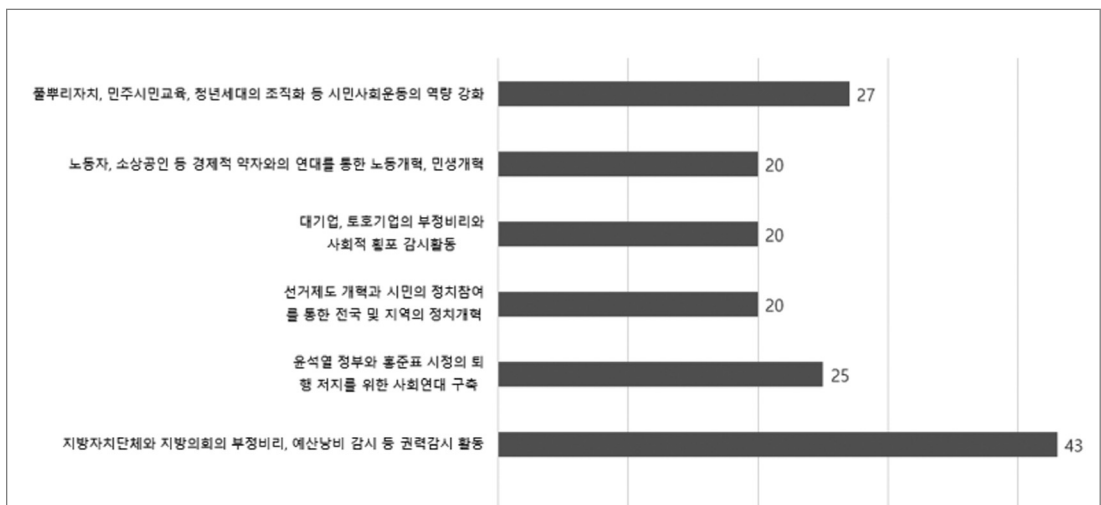
- 2점 16.4% (9명), 3점 18.2% (10명), 4점 16.4% (9명)으로 흥 시장 시정평가에 대체로 낮은 점수

14-1. 윤석열 국정평가 점수를 매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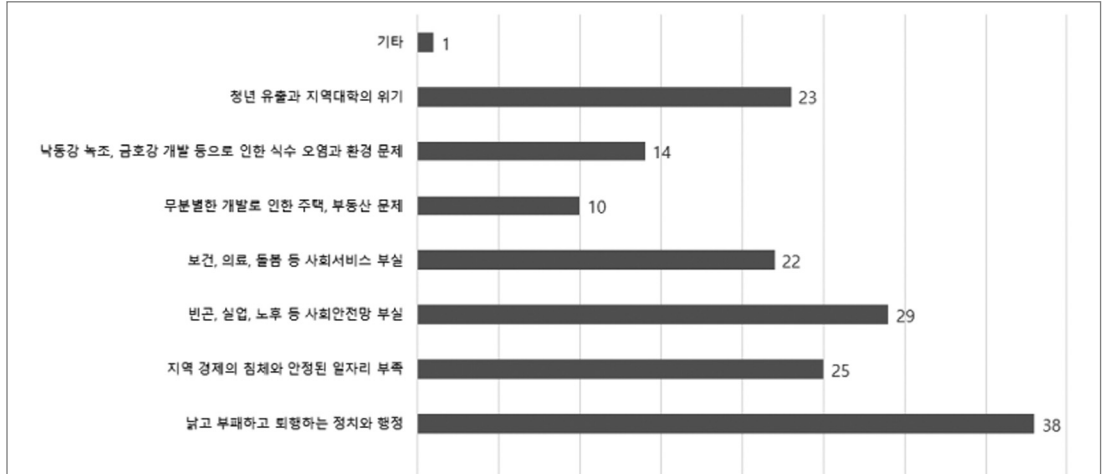
- 윤석열 국정평가는 1점에 74.5% (41명) 응답함
- 2점 10.9% (6명), 3점 7.3% (4명)으로 홍준표 시정평가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가 매겨짐

15. 대구 변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3개 선택)



- 가장 많은 응답은 78.2% (43명)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부정비리, 예산낭비 감시 등 권력감시 활동
-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풀뿌리자치, 민주시민교육, 청년세대의 조직화 등 시민사회운동의 역량 강화 49.1% (27명),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시정의 퇴행 저지를 위한 사회연대 구축 45.5% (25명)

16. 대구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대구사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 가장 많은 응답은 69.1% (38명) 넓고 부패하고 퇴행하는 정치와 행정
- 다음으로 지역 경제의 침체와 안정된 일자리 부족 45.5% (25명), 청년 유출과 지역대학의 위기 41.8% (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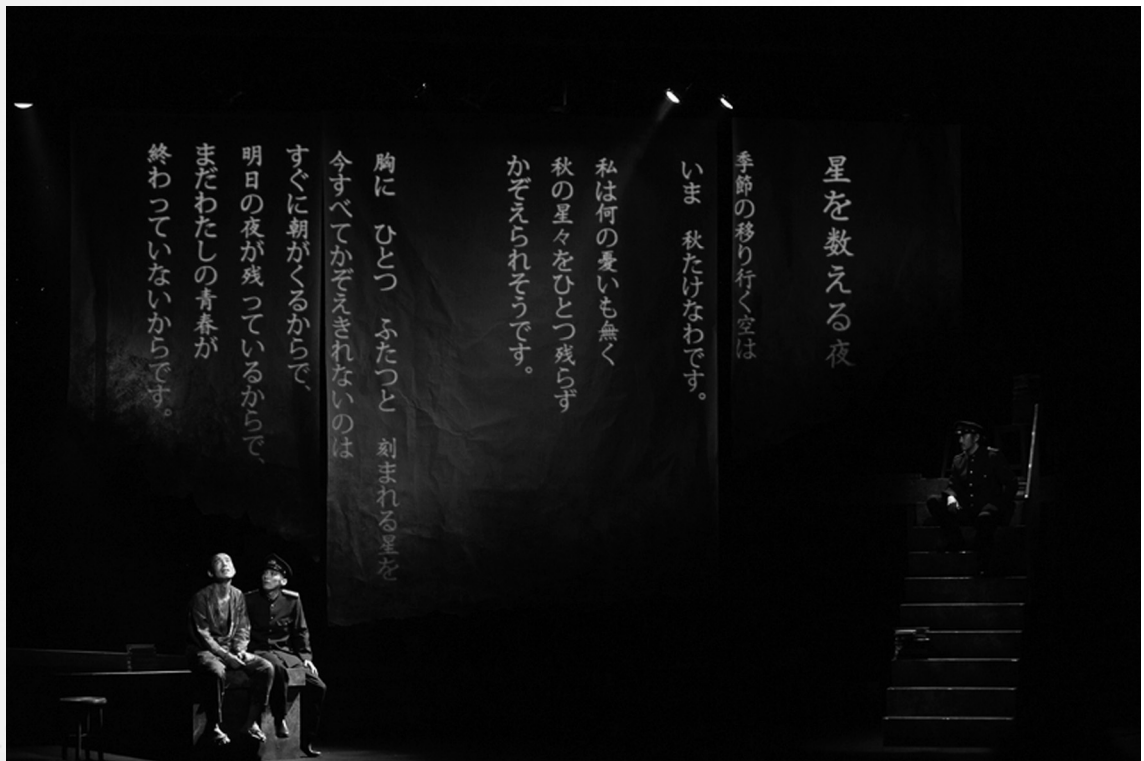
17. 대구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균형적인 사고와 공정한 비판
 힘들지만 저변확대에 좀 더 힘을 써야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서민의 스펙트럼은 넓다.
 진보와 보수, 노령자와 청소년과 청년, 여성 등 기존 약자 중심의 접근이 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보기에는 협소하고, 이를 통한 참여연대의 활동 또한 편향적인 모양새를 넘지 못하여 합리적 대안으로 접근함에도 한계가 있어 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참여연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광장을 열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제한된 시간 내에 말 할 수 있게 함을 제안해본다.
 늘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참여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선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음
 존재만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의 확대
 대구참여연대, 1990년대 중반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자그마한 공간을 열고 시대를 바꾸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름다웠던 그 청년들이 이제 초로의 장년이 되었다. 내 앞가림하기에 도 벅찬 우리나라에서 이웃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정치를 위해 오늘도 남모르는 피와 땀을 흘리고 계시는 활동가 여러분을 응원한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타 단체와 협력하여 전세 사기,환경 오염 등 큰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다뤄 달라
 공동체 의식의 시민연대가 중요한데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업과 홍보가 필요
 시대적으로 힘든 상황일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좀 더 힘 받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응원한다.

“극장에는 가슴 뛰는 삶과 가슴 설레는 시간이 넘쳐난다”

일본 시민사회 ‘연극 감상회’ 활발…윤동주 의문사 다룬 연극도 무대에

김형진 참여와소통위원회



▲ 윤동주 시인을 다룬 연극 ‘별을 스치는 바람’이 일본 시민사회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극단 청년극장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후쿠오카의 감옥에서 한 간수가 죽었다. 신임의 젊은 간수가 살인범의 수색에 나선다. 죽은 간수의 옷 주머니에는 한 편의 시가 들어 있었다. 이 시를 쓴 것은 윤동주, 당시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의 신분이었다. 간수는 왜 그의 시를 가졌을까? 누가 왜 이 남자를 죽였을까?

일제 치하의 일본에서 1945년 옥사한 국민 시인 윤동주를 소재로 그의 마지막 날들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이정명의 소설 ‘별을 스치는 바람’이, 한일간 연극교류를 활발하게 이어온 시라이 케이타의 각본·연출로 일본 연극 무대에 올랐다. 연극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9월 지난달 도쿄에서 첫 상연된 이후

2023년부터는 일본 내 각 지역 시민사회의 요청에 의해 전국 각지의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TV드라마화 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 모았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둘러싼 미스터리 소설 '뿌리 깊은 나무'와 신윤복과 김홍도를 둘러싼 충격적 비밀을 그린 '바람의 화원' 등으로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른 이정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연극은 운동주의 옥중 생활을 중심으로 소설의 허구성을 살려 시인의 시를 견열하는 일본인 간수들과의 이야기를 때로는 서스펜스적으로, 때로는 감성적으로 풀어낸다. 운동주는 도시사대학에 유학 중이던 1943년 조선어로 시를 쓴다는 것이 '조선 독립운동'에 해당된다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후 후쿠오카 감옥에 수감되어 복역 중이던 1945년 27세의 나이로 옥사했다.

연극 '별을 스치는 바람'은 2023년 9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쿄 공연을 가진데 이어 21일부터는 시모노세키 시민극장에서 사흘간 상연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베푸(9.25), 오이타(9.26), 기타큐슈(10.2~7), 구마모토(10.9~10), 가고시마(10.11~12), 미야자키(10.13), 나가사키(10.16~18), 후쿠오카(10.23~25), 사가(10.26) 등 큐슈 전역 17개 지역을 돌며 호평 속에 공연을 이어갔다. 11월 28일부터는 다시 관동지역 가나가와현의 히라츠카 연극감상회 초청 상연을 비롯해 치가사키(11.29), 후지사와의(12.2), 가와사키(12.5,9), 요코스카(12.10), 가마쿠라(12.11), 와가야마(12.15~16), 교토(12.17~18), 고베(12.21~22), 나라(12.24) 등 지역 시민사회의 요청이 많았던 관동, 관서지역을 넘나들며 12월 24일까지 총 33개 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이 공연이 특별히 주목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공연 주최측인 청년극장이나 연극전문 프로모터의 계획에 의한 순회공연이 아니라 철저히 각 지역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일정과 장소가 결정되고 된다는 데 있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연극감상회 등의 문화 모임이 지역별로 결성되고 상당수의 시민이 여기에 가입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가마쿠라 연극 감상회의 경우 약 4천명이 가입. 19면 상자 기사 참조)

특히 감상회 소속 참여 시민들이 스스로 희망하는 공연을 추천하고 고르거나 공연 홍보, 팸플릿 제작 및 배포, 공연 준비 지원 및 감상, 공연 후 무대 철거 및 배우와의 만남 등 거의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공연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



▲ 연극 '별을 스치는 바람(星をかすめる風)'의 일본 내 포스터 ©극단 청년극장



▲ 윤동주 시인을 다룬 연극 '별을 스치는 바람'이 일본 시민사회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극단 청년극장


12월 11일 가마쿠라시 예술관 대홀에서 개최된 공연에서는 800명을 넘는 지역 회원 중 약 79%에 달하는 630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실제로 연극감상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에서도 자부심이 묻어난다.

가입 동기를 묻는 질문에 회원들은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연극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 “도쿄까지 가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비해 지역에서 부담 없이 좋은 연극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스스로 티켓을 구매 연극을 보는 경우 아무래도 보는 것이 편향되어 버린다”며 “다른 회원들이 추천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보면 의외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공연 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무대 뒤의 일을 알 수 있어 흥미롭고, 무대 도구와 구조를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는 이야기와 “공연 후 배우들과의 교류회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단순한 연극 관람만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며 자랑에 열을 올린다.

이런 구조다보니 일본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제시대 조선인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어 미스터리한 죽음을 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별을 스치는 바람’과 같은 연극도 당당히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고, 이 연극을 주관하는 청년극장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극단은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공연한다’는 점과 ‘공연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각자 지역의 감상회를 통해 이 연극의 상연을 요청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별을 스치는 바람’의 원작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음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출간

됐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문학상을 받았다. 각본과 연출을 담당한 시라이 케이타 씨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국경을 넘어 호소력이 있다”며 이 연극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를 설명한다. 

■가마쿠라 연극 감상회란?



演劇鑑賞会 入会のお誘い

演劇は観客の心の中に
そこだけに生きる

入会案内

●鎌倉演劇鑑賞会とは
NPOの法人格をもった会員の演劇鑑賞団体です。観劇を鑑賞し、人間らしい生きがいを感じ、思いどろみある文化を享受することを目的としました。
人間と社会を向き合ふべき視点で舞台を創造する「新演劇」から誕生した鑑賞運動は、資料を目的とせず、鑑賞者主体の活動の場を創出する「演劇鑑賞会」を創出。その理念が軸となる会であることに加え、草創、継承に尽力しました。創設から30年、2000回を超える例会を実施し、鎌倉で現在800人を超える会員が年間50回の例会に鑑賞しています。

●誰でもいつでも入会できます
「演劇鑑賞で人生に思いを育みたい」と思う方が誰でも、どこに住んでいても、いつでも入会できます。
ただし、演劇鑑賞会はサークルによって構成されており、会費などはサークルの持ち回りで行われていますので、友達や家族などでサークルに入会されることを事前に申し込むか、知り合いのサークルに入会していただくか、また、様々な作品の出会いと発見を大歓迎する「観劇しる会」なので、一般の方の入会も歓迎です。最低1回は鑑賞して、舞台と演劇鑑賞の魅力が伝わってまいります。

●誰でもできることを手づくりで
例会の準備・運営は、各サークルが1年度希望した例会の運営サークルに参加し、例会を「手づくり」して実現しています。運営サークルは、作業のつぎな作品を制作し、サークルの例会を運営し、大会に仲間を勧誘してまいります。

NPO法人 鎌倉演劇鑑賞会
0467-46-4042

NPO법인 가마쿠라 연극 감상회(NPO法人鎌倉演劇鑑賞会)는, 1988년 '쇼난 연극 감상회(湘南演劇鑑賞会)'를 전신으로 하여 일본 가나가와현 후지사와(藤沢)를 거점으로 설립된 이후 회원의 폭이 넓어지면서 인근 치가사키(茅ヶ崎), 가마쿠라(鎌倉) 지역 연극 감상회를 통합해 2009년부터는 현재의 독립 법인으로서 운영 중인 가운데 창립 후 30년간 200회가 넘는 감상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가마쿠라에서만 8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연간 6회의 연극을 감상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를 약자와 약자의 관점에서 무대를 창조하는 '신극운동(新劇運動)'에서 탄생한 이 감상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전 평화를 추구하는 신극의 정신을 존중하는 극단, 연극창작단체와 함께 현재 약 4000명의 회원들이 연극 공연과 감상을 하는 '예술 감상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연극을 통해 더 풍부한 감동을 지인과 함께'라는 희망을 바탕으로 회원제 감상 단체의 형태로 시민의 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삶의 무대'를 만들고, 마음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가꾸기 위해 회비를 내는 회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여 모임을 지탱하고 있다.

■누구나 언제든 가입 가능

'연극을 보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단, 연극 감상회는 서클별로 구성되어 있고 회비 등은 서클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 등으로 서클(3명 이상)을 만들어 사무실에 신청하거나 지인의 서클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다양한 작품과의 만남과 발견을 중요시하는 '지속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연극 감상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관람하면서 무대와 연극 감상회의 매력에 빠져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만든다

감상회의 준비와 운영은 각 서클이 1년에 한 번씩 원하는 감상회의 운영 서클에 참여하여 감상회를 바톤터치 형식으로 실현하고 있다. 운영 서클은 작업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내 손으로 만드는 감상회 운영과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감상회를 통한 지인의 폭도 넓혀갈 수 있다.

劇場には、心を揺さぶる人生と心ときめかす時間が溢れている。

<p>2月 劇団NLT 新演劇のキャラクターで電子人生を創り出し、そして人間性を取り戻す「シラケ」は? 作/金子信雄 演出/本藤紀久子 出演/坂本あゆみ、阿部真央、池田美津子 2月23日(木)夜3:00 鎌倉芸術館大ホール</p>	<p>ミュージカル O.G. 作/金子信雄 演出/本藤紀久子 出演/坂本あゆみ、阿部真央、池田美津子 2月23日(木)夜3:00 鎌倉芸術館大ホール</p>	<p>4月 東京芸術座 夏目漱石の傑作を高く評価された人々の劇の心と魂を伝える、演劇の神髄 作/夏目漱石 演出/村松道平 出演/手塚理美、若原雅夫、藤村俊久、尾野真知 他 4月9日(日)4:30 鎌倉芸術館大ホール</p>	<p>いぐねの庭 作/金子信雄 演出/本藤紀久子 出演/坂本あゆみ、阿部真央、池田美津子 2月23日(木)夜3:00 鎌倉芸術館大ホール</p>
<p>6月 こまつ座 浅草のついでに舞台に人間への愛情を注ぎ、身の上話が感動的現代劇の名作 作/岸田國光 演出/東山純也 出演/松岡美奈、柳下さゆり、村井良夫、高野浩吉、大塚真由 他 5月28日(金)1:30 藤沢市民会館大ホール</p>	<p>きらめく星座 作/岸田國光 演出/東山純也 出演/松岡美奈、柳下さゆり、村井良夫、高野浩吉、大塚真由 他 5月28日(金)1:30 藤沢市民会館大ホール</p>	<p>8月 文学座 夏目漱石の傑作を高く評価された人々の劇の心と魂を伝える、演劇の神髄 作/夏目漱石 演出/村松道平 出演/手塚理美、若原雅夫、藤村俊久、尾野真知 他 8月25日(金)4:00 鎌倉芸術館大ホール</p>	<p>昭和虞美人草 作/夏目漱石 演出/村松道平 出演/手塚理美、若原雅夫、藤村俊久、尾野真知 他 8月25日(金)4:00 鎌倉芸術館大ホール</p>
<p>10月 劇団俳優座 高校を舞台に青春を謳歌するアンソロジーで、愛・情・性・死の葛藤を描いた大作 作/橋田寿賀子 演出/青島義典 出演/大塚真由、山田真由美、阿部真央、池田美津子 他 10月8日(日)4:00 鎌倉芸術館大ホール</p>	<p>雉はじめて鳴く 27歳で結婚した劇団員の人として登場する、若狭(イオン)と義典(日)を名づけた作/イオン・義典 脚本/演出/シラケイフ 出演/大塚真由、山田真由美、阿部真央、池田美津子 他 12月11日(月)無休未定 鎌倉芸術館大ホール</p>	<p>12月 秋田県立 土川幸太郎記念 青年劇場 27歳で結婚した劇団員の人として登場する、若狭(イオン)と義典(日)を名づけた作/イオン・義典 脚本/演出/シラケイフ 出演/大塚真由、山田真由美、阿部真央、池田美津子 他 12月11日(月)無休未定 鎌倉芸術館大ホール</p>	<p>星をかすめる園 27歳で結婚した劇団員の人として登場する、若狭(イオン)と義典(日)を名づけた作/イオン・義典 脚本/演出/シラケイフ 出演/大塚真由、山田真由美、阿部真央、池田美津子 他 12月11日(月)無休未定 鎌倉芸術館大ホール</p>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정규직화 투쟁 현장”

“단 한 명도 포기 못해!” 두 달째 파업...가장 추웠던 나흘, 서울서 원주까지 도보행진

이소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조합원



나의 투쟁일기.

2023년 12월 05일 (화)

오후 5시에 예정되었던 퇴근선전전이 5시 20분으로 변경되었다.

‘전 조합원은 깔개, 마스크 꼭 쓰고 따뜻하게 준비해서 집결해 주세요!!’ 어제든 시간이 변경됐으니 오늘도 그런 거겠지 하며 깔개와 핫팩을 챙겨 후문으로 향했다. 대오를 정비하고 있는 동지들이 보인다. 갑자기 대오가 흐트러지며 공단 후문으로 동지들이 달려간다.

어제(12.4.) 지부장 동지와 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총파업 35일 만에 만나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교섭일을 잡자 했다. 이사장은 오랜 단식으로 지부장 동지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했다. 그런데 교섭일을 8일 금요일로 통보했다.

그간 공단이 보여준 언행불일치가 많았지만 이젠 도를 넘어섰다. 앞에서는 염려하는 척하면서 4일을 더 굶으라고 한다. 이것이 의사였던 이사장의 처방이란 말인가! 이런 이사장의 취임 소식을 듣고 노동자의 외침, 약자의 소리도 귀 기울여 줄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던 순진한 나를 부정하고 싶을 만큼 역겨움이 올라왔다. ‘실패’ 운운 하길래 그래도 공공기관이니 약속은 지키겠거니 했었지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때 남성 경찰들이 집회 대오를 방패로 밀고 들어왔다.

‘원주의 밤’ 혹은 ‘원주대첩’이라 불리는 이날, 35일 차 단식 중이던 지부장 동지는 집회 현장에서 함께 하다 쓰러졌고, 조합원 중 몇 명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9시경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이 긴급 연행되었습니다. 겨울밤이 길다고는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21년 10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 전환 승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동료를 맞이하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공단은 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 700여 명을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근무한 동지들과 경쟁하며 누군가를 다시금 버리게 만드는 공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어느 상담사는 선배들이 전환될 수 있다면 자신을 버리라고까지 합니다.

23년 1월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손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살을 에는 추위보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끝이 보이지 않던 투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두렵고 힘들었던 일은 동지를 잃는 것이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없기에 지부장 동지와 대표자 동지들은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뜻을 이어 조합원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추웠던 12월 18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용산이사장 집무실)에서 원주(공단 본부)까지 500리 길 도보행진을 했습니다. 사나운 북극한파에, 처음 하는 도보 행진에 두려움이 앞섰지만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굳은 결의로 동지들과 함께 투쟁기도 부르고 울동도 하며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행진 1일 차, 아무것도 모르고 걷다가 끝나버린 것 같은데 숙소에 와서 뺏었습니다. 행진 2일 차, 대구에서는 보기 힘든 눈을 맞으며 효자고개¹⁾를 넘는데, 효자고개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효자 되기가 이 정도로 힘들어서 효자 고개인가 보라며, 이 고개를 넘어가면 그토록 힘들었던 소속기관 전환 약속 이행도 거뜬히 받아낼 수 있겠다며 악으로 깡으로 걸었습니다. 행진 3일 차, 발목이 말짱이라 병원에 들렀는데 도보행진을 한다고 하니 의사분이 "이 추위에요?" 하며 놀라십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일 테지만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상담 노동자들이 왜 길 위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해하려거나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진 4일 차, 물집을 터뜨리려하며 부르튼 발에 테이핑을 하고 발목과 무릎을 보호대로 감싸고 절뚝거리며 걷는데 머릿속이 까마득해집니다. 건강보험공단 여주시사에서 출발하여 구불구불 끝이 보이지 않은 산 오르막을 걷고 나서야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무임금 총파업, 생계가 흔들릴 정도로 힘겨운 투쟁입니다. 세상에 쉬운 투쟁이 어디 있겠느냐는 지켜보는 가족이나 지인들도 같이 힘듭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어린 자녀를 맡기기도 어렵고, 매서운 겨울 추위에 원주 본부 앞 천막 농성장을 지키거나 길거리에서 선전전하는 데도 이젠 힘에 부칩니다. 가진 것이라곤 맨몸뿐인 무모한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히말라야>를 보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데스존에서 생을 마감한 후배 대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엄홍길 대장과 휴먼원정대가 나옵니다. 기록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여정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위험한 일임에도 나서야 했는지에 대해 '아무 이유 없다, 거기 사람이 있으니깐' 라고 영화는 말합니다.

우리 투쟁 또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콜센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외침에서 시작되었고, 상담노동자의 노동이 누군가의 노동보다 하찮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에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이 50만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길잡이가 되는 투쟁이고,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설움을 대변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투쟁문화제 때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지났고, 밤은 점차 짧아질 것이고, 따뜻한 봄이 올 거' 라는 어느 동지의 말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시간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오늘도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로 들어가는 고개

“우리 동네에는 괴물이 산다” - 영화 <괴물>



김병호 화가 cosmo4189@hanmail.net



▲ 영화 <괴물>의 한국판 포스터

오늘 오랜만에 일본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괴물 Monster, 2023>을 보았다.

호수에 인접한 어느 도시의 한 건물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일어나는 풍경으로 영화가 시작되어 엔딩자막이 올라가는 마지막 한 순간까지 잠시도 눈을 떼기 힘든 영화 <괴물>은 거장 고레에다의 완전한 결정판이라 할 만한 것들로 가득하다.

3개¹⁾의 시선으로 구성된 이 영화는 고레에다 감독 특유의 건조하지만 소박한 일상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그 답지 않은 스릴러를 가미하고 사회병리적인 것들을 증폭함으로써 새로운 구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영화는 평범한 일상을 배경으로 자식을 보호하려는 어떤 모성과 이해하기 힘든 인간관계구성, 그리고 학교사회의 부조리한 것들의 근원을 찾아들어가고 있다.

1) 여기에서 '~개'로 표현한 이유는, 세 사람의 세 가지 시선에서 확장되어 각자의 시선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한 단면 단면을 대변하기에 '세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세 개'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는 한국사회의 아동학대교사 이슈와 학부모들의 소송 등 교사에 대한 괴롭힘과 교내 학폭 등이 야기한 일련의 사건들을 목도한 바 있다. 작지 않은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들이 영화 <괴물>을 보며 오버랩 되었다. 그러나 영화는 그런 단면적인 것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거짓말(죽은 아버지의 과거를 미화한 것)이나 아이들의 아무 생각 없는 거짓말(그로 인해 죽음으로까지 몰리는 교사), 그리고 한 교사를 향한 학교사회의 행동(진상규명을 포기하고 담임선생을 희생하는 쪽을 택했던 것) 등이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그런 것 하나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하는 생각이 묘하게 교차하였다.

각자의 시선에서 서로 가해자가 되었다 피해자가 되며, 피해를 받은 이가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이 모순들을 바라보는 것이 무겁게 다가오지만 영화는 시종일관 고레에다 특유의 미장센과 故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으로 인해 완벽한 영상의 구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이런 모순과 위선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은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끝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처연한 아름다움으로 내 가슴을 후비듯 심연으로 들어왔다.

영화 포스터에 적혀있는 “괴물은 누구인가?” 라는 문구는 비단 이 영화의 이야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어느 인터뷰에서 "일본의 제도 자체를 비판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다만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인' 이라는 말, 혹은 '남자가', '남자다운'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누구도 해를 입히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감독의 말을 통해 우리가 느꼈던 어떤 행동들이 어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거나’, 그야말로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그 무엇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어찌면 이해의 범위 안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오랜만에 거장의 영화를 통해 잊고 있었던 그 무엇에 대한 것이 떠오른다. 영화 <괴물>의 각본을 통해 칸 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사카모토 유지와 함께해서 더 신선했던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 <괴물>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래저래 소원했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의 화두가 어찌면 ‘이해’의 폭에 대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은 솔직히 좋은 영화를 만나 누리는 이 두근거림으로 인해 너무 좋은 하루가 되고 있다. 끝으로 끝내 치유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극악한 부조리가 평범하게 펼쳐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일면을 보며 치를 떨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며 서로에게 용서받을 시간과 여유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위로해보기도 한다. 

페미니즘 혐오와 집게손사태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메갈리아와 벅스 집게손사태

갑진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 2024년 대구참여연대 회원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다. 필자는 사람들의 ‘평안’과 다가오는 4월 총선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가장 간절한 소망은 성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소식은 성폭력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성폭력 피해도 불구하고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이 상황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자주 있는 일이다.

2023년 11월 23일 재계 서열 39위인 벅스가 공개한 게임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집게손가락이 등장했다며 이용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본사 디렉터는 유튜브로 사과했고, 벅스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회사들도 자발적으로 집게손을 찾아 없애는 혈안이 되었다. 이 무슨 슬픈 현실인가.



출처: 구글이미지

게임을 하지 않거나 온라인 ‘미소지니’¹⁾ 현상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웬 집게손가락?’ 하며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다. 이 집게손가락 논란은 2015년 온라인 속 여성혐오 현상에서부터 그 맥락이 있다.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연구자들과 함께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현상을 분석했는데 낯선 온라인 혐오발언들은 지면에 옮기기 힘든 가학적인 내용이었다. 이런 가해 발화를 일상 속에서 접하던 여성유저들은 당시 메르스가 유행하게 된 시작은 홍콩에 다녀온 여성들 때문이라는 비난에 분노하였고(실제 메르스 1번 환자는 중동 사업가인 남성이었음) ‘메갈리아’²⁾를 만들었다. 메갈리아는 100만이 회원이었다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폐지운동과 소라넷 안에서 이루어지던 ‘강간 모의’ 등을 공론화 했으며 불법촬영물 유통 등을 문제시하였다. 바야흐로 인터넷 페미니스트들의 등장이다. 그러나 미소지니의 ‘미러링’이라는 메갈리아의 전략 중 일부는 혐오와 차별 배제를 하기도 하였고, 2016년에는 분화되어 사라진 것으로 본다. 이 메갈리아의 상징이

1) 미소지니: misogyny 여성에 대한 혐오, 멸시, 뿌리 깊은 편견을 뜻하는데 여성학자 정희진은 언어적 맥락을 고려할 때 ‘여성혐오’로 번역하는 것은 발명수준의 오역으로 보며 ‘미소지니’ 그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한겨레신문 [정희진의 어떤 메모] 미소지니=여성혐오? 2017-08-04와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2) ‘메갈리아’라는 이름은 디시인사이드 소속의 ‘메르스 갤러리’와 노르웨이의 여성주의 소설인 『이갈리아의 딸들』과의 합성어이다.

한국남성의 성기 크기를 상징한다는 집게손가락인데 메갈리아는 이후 페미니즘 사상검증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너 메갈이지?’ 라는 말은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이고 지금은 ‘너 페미지?’ 로 확장되었다.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사상 검증

게임업계의 사상검증은 2016년 김자연 성우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넥슨이 서비스를 하려던 '클로저스'의 '티나' 역을 맡은 김자연이 트위터 계정에 메갈리아 4에서 제작한 "Girls do not need a prince"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³⁾를 구매해 인증하였고, 이에 게임 사용자들이 성우의 교체를 주장해 티나 역의 성우를 교체한 것이다. 이후 웹툰 작가들이 김자연 성우 지지를 표현하자 이에 대해 온라인상의 '표현



출처: 구글이미지

의 자유'를 제한하는 '에스 컷' 운동으로까지 촉발되었고, 정의당은 문화예술위원회가 논평을 발표했다가 일부 당원들이 탈당하자 성명을 철회하였다.

2016년 성공의 경험은 2023년 넥슨의 집게손사태로 이어졌으며 일부 게임유저들은 게임업계에 서 페미니스트라면 언제든 지를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넥슨의 집게손사태는 넥슨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하청업체 뿌리스튜디오에 대응할 것을 압박하였고 뿌리는 일단 사과하였지만 문제시된 그림은 물론 뿌리의 다른 영상들도 남성 감독이 연출하고 그린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뿌리스튜디오의 다른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이버 불링과 신상에 대한 위협은 도를 넘었다. 이 사건을 규탄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여성단체들이 넥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죽이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올라왔고 기자회견 주최 측에 대한 협박은 이어지고 있다. 게임업계의 사상검증은 2023년 7월에도 있었는데 프로젝트 문이 출시한 모바일 게임 '림버스 컴퍼니'의 일러스트 작가의 SNS 글을 문제 삼으며 회사를 집단 방문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여성노동자들을 비난하고 회사를 압박하던 경우를 넘어 직접 찾아가기 까지 한 것이다. 회사는 정규직인 여성 노동자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했고 결국 여성 작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3) 이 티셔츠는 텀블벅 후원의 내용에 국내외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던 '메갈리아2,3', '페이지가 편파적 발언과 상징이 포함되었다며 삭제 조치 된 반면 각종 여성혐오 발언과 영상을 담은 '김치녀' 페이지는 신고에도 삭제 조치되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한 모금을 위해 판매 제작되었다.


페미니스트라는 낙인과 페미니즘

이제 페미에 대한 낙인은 온라인에만 있지 않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는 페미니즘 동아리원이라는 것을 숨겨야 하고 페미니스트라는 것이 밝혀지면 테러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오래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만든 페미니스트 티셔츠를 입고 외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20대 남성의 충고는 오랜 동안 마이크를 잡으면 ‘세상을 바꾸는 페미니스트’라고 인사해온 필자에겐 충격이었다.

이런 현상들은 범죄로 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마구 때렸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까지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미 ‘페미’로 낙인찍히면 물리적 공격까지 행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은 왜 이렇게 공격받는가?

미국의 흑인 페미니스트 벨 후스는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지배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며 젠더차별을 근절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투쟁이다.’ 라고 했다. 즉 페미니즘은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며 페미니스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는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 그러다가 2018년 미투 운동이 터졌고 페미니즘의 대중화 시대가 왔다.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실천을 가져왔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젠더갈등’이라는 갈라치기 논리가 ‘발견’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SNS에 올렸다. 페미니스트라고 폭행을 당하는 것은 젠더갈등이 아니라 범죄이다. 갈등은 대등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평등 추진체계와 예산의 축소, 여성폭력피해자 예산의 삭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인원 축소 등은 명백히 성평등의 퇴행이다. 젠더갈등이라는 사회적 언설과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정부정책은 기존의 여성대상 폭력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일상과 정치는 이렇게 이어진다. 페미니즘은 급진적인 생각이다. 언제나 사회의 진보를 가져오는 생각들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온 역사를 돌아보며 갑진년 새해, 한걸음 더 나아간다. 

청년인지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예산에는 '인지예산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인지 예산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있습니다. 인지예산이 무엇인지는 법령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국가재정법 제26조 1항에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법 제27조 1항은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인지예산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 또는 집행한 예산에 대해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인지예산제가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예산체계는 프로그램예산제도(계획예산제도)입니다. 단어가 가지는 의미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 기준으로 성과목표와 달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과 목표는 그리 세부적이지 않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정책사업목표 **지역 맞춤형 출산정책을 발굴·확산 및 인식개선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구시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결혼·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시민 출산정책 홍보
- 미래세대 결혼·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학생 결혼육아 예비교실 시행
- 대구 베이비키즈 박람회를 통한 지역사회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차지원 신청 누적건수 (건)	핵심	100	목표	650	800	1,000	1,100	1,150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차지원 신청 누적건수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차 지원 시스템
			실적	661	936					

(대구광역시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대구시 청년정책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 '청년주거정책'에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정책적 목표는 '출산정책 개발'입니다.

같은 목표에 속하는 사업으로는 '출산정책 홍보' '대학생 결혼육아 예비교실' '출산정책홍보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성과계획과 목표는 오로지 '출산정책'과 관련된 지표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차지원'이 과연 직접적으로 출산정책과 연관되는지 의문이 있고, 청년주거와 관련된 성과지표는 없는 상태이기에 정확한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에서 '복지·문화'로 분류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정책적 목표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1) 주요내용

- 위기아동의 보호강화 및 '출로서기' 동행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시민인식 개선
- '부모 안심, 아이 행복' 아동친화도시 구현
 -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 문화공간 조성
 - 아동 돌봄시설 확충 및 돌봄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아동 복리후생 및 자립지원 강화
 -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대구광역시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즉, 이 사업은 청년정책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청년'과 관련한 정책적 실효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청년정책 소관부서가 분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청년정책 소관부서는 5개국 2개실(13과 3관)이며, 청년정책만 다루는 청년정책과를 제외하면 다른 소관부서에는 기존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청년정책은 다소 육여넣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표1〉 2023년 청년정책 소관부서

청년정책 소관부서						
경제국	청년여성교육국	보건복지국	미래혁신성장실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주택국	기획조정실
고용노동정책과	출산보육과	복지정책과	창업벤처혁신과	문화콘텐츠과	주택과	정책기획관
농산유통과	청소년과	건강증진과	미래혁신정책관	문화예술정책과	도시정비과	
국제통상화과	청년정책과		미래모빌리티과			
	교육협력정책관					

비슷한 이유로 성인지예산제도와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인지예산제’도 이러한 이유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수민 전 국회의원과 태영호 국회의원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청년인지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국회 문턱은 넘지 못 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러한 공약을 담은 후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홍준표 시장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현재도 그 생각이 유효하다면, 대구에서부터 청년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여 효과분석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날개 달기

2023년 대구참여연대 창립 25주년 후원금 모금 및 회원확대 캠페인

개인

박경로 강동철 공정옥 구인호 김균식 김기용 김기웅 김동은 김동형 김동환 김미경 김보영 김상욱 김선희 김성수 김성환 김수미 김언호 김영숙 김영철 김영화 김윤상 김은호 김정화 김정희 김중진 김지일 김채원 김채원 김형진 김효정 남채현 남호진 노연수 노연수 류영준 문양식 문용우 문창식 민혜진 박근식 박기영 박옥순 박용우 박은정 박재범 박정민 박종률 박지훈 박청진 박형룡 배은경 서대현 서상민 서창환 석성진 송성범 송해익 신숙경 심윤철 안철택 양진오 엄창욱 염윤희/이상길 우복연 우성문 원유솔 윤문주 윤소원 윤용희 윤지현 이동진 이동진 이두욱 이상룡 이상욱 이선영 이소영 이승연 이승익 이시범 이영윤 이원준 이은미 이재동 이재성 이정만 이정수 이종득 이종득 이종우 이주영 이주영 이현민 이현숙 이화정 임성종 임우정 장영철 장영훈 장지공 정성훈 정숙자 정재훈 정혜숙 정희선(신동완) 조영태 채장수 최기현 최병덕 최정암 최정옥 하성협 한민정 한유미

단체.기업

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 대구고용복지연구원 대구은행 대구의료원노조 (주)대성에너지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지하철노조 디지털인쇄협동조합 10월항쟁유족회

회원가입

권용현 김정민 이금태 이승렬 이원배 이정애 전우태 차우미(회비인상) 차정원(재가입) 최유정

함께 해 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대 양당의 선거 카르텔 깨기 ‘위성정당’ 방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선거제도 개혁에 시민참여단 등장

정치, 경제, 환경,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에서 국운이 휘청대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느낌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싹을 찾아보고 싶다. 우선, ‘시민참여단’이 작은 희망을 준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 배분해 모집한 500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5월 6일과 13일 양일간 숙의를 거쳤는데,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에 대한 찬성 비율이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증가하였다. 또 ‘국회의원 수는 지금 이대로 또는 늘리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도 숙의 전 31%에서 숙의 후 62%로 높아졌다. 숙의 과정은 K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국회의원 구성이 국민의 정당 지지율과 비례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양대 정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상식을 거부해왔다. 상당수 국민 역시 익숙한 기존 제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민이 숙의를 거치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식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출에도 국민참여 확대

또 하나의 작은 희망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방송 3법’ 개정안이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KBS 이사회 (이사 11명, 여·야 추천 7대4), 방송문화진흥회(MBC 경영 관리·감독) 이사회 (이사 9명, 여·야 추천 6대3), EBS 이사회 (이사 9명, 여·야 추천 7대2)로 되어 있다. 정치적 독립이 생명인 언론기관의 지배구조를 이렇게 정치권, 특히 여권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당이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이없는 모습이 반복됐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11월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는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



▲ 사진 출처. KBS뉴스 <예비 등록 코앞인데 선거제 '깜깜'...병립형·준연동형 입장 엇갈려>(2023.11.28) 방송 캡처

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을 추천한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경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대로 시행되면 공영방송 인사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사례는 정치권의 독점을 줄이고 국민의 상식을 더 반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선거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해 기득권을 지키고 국민 참여 확대에 반대해온 국민 의힘에는 물론 기대를 걸 수 없는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작년 대선 직전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결의했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약속했었지만, 최근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옆치락뒤치락,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사례

그래도 필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국민참여 확대라는 상식이 자주 언급되다 보면 그 방향의 개혁이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이 하나의 사례다.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소선거구를 유지해오면서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이 권력을 나눠 먹고 있었다. 그런데도 양대 정당의 기득권에 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993년에 도입되었다.




▲ 사진 출처, KBS뉴스 (예비 등록 코앞인데 선거제 '깜깜'…병립형·준연동형 입장 엇갈려)(2023.11.28) 방송 캡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978년과 1981년의 선거에서 두 차례 모두 국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집권했는데, 정당 득표율은 노동당이 오히려 더 높았다. 속이 상했던지, 노동당은 1984년 선거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하고 승리하였고, 공약에 따라 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개혁특위가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자 노동당은 반대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양대 정당이 나눠 먹는 복점 구도가 깨질 것으로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1987년 선거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한 노동당은, 재집권하면 이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이 다시 승리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국민투표를 뭉갸다.

그러자 1990년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이런 노동당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공약하여 선거에서 승리했다. 국민당도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태가 이렇게 되니 마지못해 1992년에 비례대표제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84.5%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64.9%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지지하였다. 양대 정당은 모두 개혁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1993년 의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여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53.9%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양대 정당 체제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의 희망이 전혀 없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도 뉴질랜드 같은 극적인 변화를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가자. 제22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가 없다. 물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최선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지켜야 한다. 첫째로,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성정당이라도 금지해야 한다.

최근 정계에서는 '이준석 신당', '비명계 신당', '금태섭 신당', '개혁연합 신당', '선거연합 정당', '비례연합' 등 여러 설이 나온다. 새로 생기는 정당 또는 연합은 위성정당에 반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 소규모 정당 및 새로 생길 정당과 연합하여, 뉴질랜드와는 달리 시원하게 변화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평화뉴스에 2023년 12월 4일자로 게재된 글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최나래 전. 상근활동가 회원을 만나다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오랜만에 회원들 뵙지요?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활동기간도 확인 부탁)

안녕하세요! 대구참여연대 회원여러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 상근자로 인사드렸었는데, 이제는 회원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2020년 2월 총회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어요. 그 시기가 하필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다 보니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께 친하게 인사를 드리진 못했던 것 같네요.

인권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운이 좋게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경험해 왔던 조직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 적응이 어렵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적응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황이라고 한다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좀 많이 쪼그요. 인생 최대 몸무게를 매번 갱신한 나머지 얼마 전부터 거금을 들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살이 빠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했

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을 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날 세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권위 활동하면서 좋았던 프로그램이나,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추천해주셔도 되고요. 좋았던 프로그램을 참여연대 회원 활동과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은 결국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방법 등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긴 무게감이 있거든요.

저는 가볍고 재미난 것의 힘을 믿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연대 때도 지금도 대중 유입이 원활할 수 있는 문화형, 참여형 사업을 선호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영화, 연극 무료상영이 있겠네요. 가벼운 문화생활 느낌으로 왔다가 현실을 깨닫고 찾아보게 되었다는 의견을 받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미리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 참여연대 회원끼리,

친구 가족끼리 함께 삼삼오오 문화생활 겸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성격으로 참여연대 활동 당시 다양한 이벤트와 사업을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 사건이 있나요?

사실 선배들이 저를 강하게 키운 스타일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턴으로 들어온 지 몇 달쯤 되었었나? 모 기관 지원사업 기획서를 써 보라고 했어요.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했는데 맨정신에도 말씀하시길래 ‘이건 진짜다’ 싶었죠. 그런데 저는 살면서 기획서를 써 보기는커녕 본 적도 없었거든요. ‘아 이거 큰일났다’ 싶었어요. 제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템은 당연히 없었고요. 상근자 회의를 통해 ‘6월항쟁 30주년’을 주제로 잡고 도움을 받아 기획서를 작성하고 어찌하다 보니 선정이 되어서 1년간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책 발간, 영상상영 등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왜 기억에 남나면요. 책에 들어갈 녹취를 다 풀다 보니 손목에 건초염이 생겼거든요.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손목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활동 당시 집에서 ‘나래 bar’를 절찬리 운영했었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나래 bar’는 여전히 ing 중인가요? ^^

원래는 밖에서 분위기 내면서 먹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또 물가가 올라 술값이 감당이 안 되면서(저는 맥주파), 집으로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집에서 먹으면 아무리 취해도 이따가 집에 갈 걱정 안 해도 되고 잠 오면 들어가서 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자도 알아서 잘 놀더군요.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이제는 정말 말할 수 있다!! 몇 가지.

진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참여연대가 한참 어려

워서 다들 예민하고 날 서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짜증부터 내는지 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제정신은 아녘나 봐요.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줘야겠다 마음에 ‘짜증일지(!)’를 써야겠다 마음먹었거든요. 얼마 전에 우연히 그때 작성한 짜증일지를 발견해서 봤는데 내용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쓰겠다고 마음먹은 그 날이 유독 짜증이 많이 났었나보다 싶어요. 흑역사 같아서 파일은 삭제했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없다면, 하고 싶은 것들)

공부는 제가 너무 싫어해서 안 하고 있어요. 필요에 다치면 할 수밖에 없으니 최대한 미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현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행위를 좋아해요.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조합을 실제로 구현해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가 재밌는 거라서요.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이나 영상 등을 배우고 싶단 마음은 있습니다.

10년 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맛있는 것을 먹고 있을 듯하네요.

애증의 참여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 바라는게 있다면? (전직 활동가로서 현직 활동가에게 한마디도 좋고~)

참여연대는 성별 나이 불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5년이라는 시간을 별 탈 없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성깔 하거든요) 앞으로도 불편함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이 수용되어 갈등 상황을 유연하게 헤쳐나가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시대의 아픔 보듬은 원유술 신부...“더 낮은 곳, 더 가난한 곳으로”

“내 이야기 들을 게 뭐가 있다고...이제 말할 것도 없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원 유 술

전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화 평화뉴스 기자

시대의 아픔을 보듬은 원유술(69.야고보) 대구 삼덕성당 주임신부님이 44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원 신부는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젊은이성당에서 지난 27일 오후 은퇴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44년 동안의 사제생활을 마무리하는 강론을 펼치고 성당을 나섰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29일 삼덕성당에서 만난 원 신부. 여전히 가톨릭 사제복인 까만색 셔츠에 하얀색 로만칼라를 입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 신부는 이름이나 별명을 부르며 “이제 떠나니까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실컷 보라”는 농담을 던집니다. ‘거리의 사제’답게 누구와도 격의 없는 모습입니다.



지역 시민운동의 대부격인 원 신부는 40년간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지켜봤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목소리를 서슴없이 냈고, 곁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노(老) 신부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 가톨릭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원유술 신부(2023.12.29) ©평화뉴스

향해 직격 발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검찰 정부다. 아무나 잡아들이고, 죄를 덮어씌울 수 있다”며 “나라 전체가 법원이 됐다. 법과 돈타령만 하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10.29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희생자를 ‘사고자’라고 표현하고, 참사를 ‘사고’라고 말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며 “국가가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고통에도 아파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된 사회다. 지켜보기 무참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하는 데까지 해 봐야 한다. 싸우고, 말하고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최근 시민사회를 지켜보는 심정을 밝힙니다. 역시 쓴소리가 나옵니다. 원 신부는 “전태일,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다 옛날 이야기가 됐다”면서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사회의 가치가 ‘돈, 돈, 돈’으로 바뀌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저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이어 “시민단체? 요새 시민단체가 있는가. 우리 자체가 힘들어 싫어한다. 편안함과 안온함에 익숙해졌다”며 “힘들게 살지 않으려 한다. 시대가 정부가 잘못해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지나간다. 그들의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참 답답하다”고 전합니다.

운동에 대한 ‘허무’가 없냐는 질문에 “전쟁의 역사는 기록되도 평화의 역사는 잘 안 쓰여져서 그렇지 돌이켜보면 꼭 그렇진 않다”고 말합니다. 이어 “시민사회는 더 낮은 곳, 더 가난한 곳으로 가고 진리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일본에 쓰나미가 터졌을 때 소방관과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은 쓰나미쪽으로 향하고 사람들은 산 위로 올려보내 목숨을 구했고, 미국 9.11 테러 때도 사람들은 내려보내고 소방관들은 건물로 올라가 목숨을 바쳤다. 감동을 주는 삶이 시민운동에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 대구 중구 삼덕성당에서 열린 원유술 주임신부의 은퇴 미사(2023.12.27) ©천광호



▲ 대구 중구 삼덕성당에서 열린 원유술 주임신부의 은퇴 미사(2023.12.27) ©천광호



▲ 이라크 파병 반대 행진(2004.7.25), 4대강사업 저지 시국미사(2010.4.10) ©평화뉴스

이제 그는 은퇴하지만 사목자로서의 삶을 이어갑니다. 경북 고령군 친형제들 곁으로 가 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노숙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원 신부는 “나를 만나려면 동대구역이나, 서울역, 지하철역으로 와라. 그 사람들 어찌 사는가 봐야지. 사회적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2024년 새해 소원은 “모두가 좀 희망적인 삶을 살길 바란다”고 밝힙니다. 그는 “올해 매일 나쁜 소식, 나쁜 뉴스가 많았는데 새해에는 좀 좋은 뉴스, 희망적인 소식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기원합니다.

원 신부는 1954년생으로 대구에서 7남매 중 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앞산 근처 소신학교 성모중고등학교에 입학해 10대부터 사제의 꿈을 꾸니다. 1970년대 대건신학대학(현 광주가톨릭대)에 입학해 1979년 졸업하고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1979년 10.26,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가 모두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향 대구로 돌아와 수성성당, 대봉성당, 남산성당 보좌 신부를 거쳐 도동성당, 죽전성당, 동인성당, 성김대건성당 주임신부, 범어성당 사목을 맡습니다.

그가 ‘거리의 사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1986년 운명의 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사목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JOC)를 맡으며 노동자들의 실제 삶을 처음 들여다 봅니다. 당시 대구는 섬유도시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공장노동자를 비하하는 말인 ‘공돌이’, ‘공순이’로 불렸습니다. 냉난방 시설 없는 일터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빵과 음료수가 나오는 날에는 철야가 당연했습니다. 손가락, 손목이 절단된 채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산업재해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국민학교(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10~20대 청년들이 스러져갔습니다.

사제의 길만 줄곧 걸어온 원 신부에게 세상은 처참했습니다. 사목활동은 ‘노동운동’으로 변했습니다. 원 신부와 힘을 합친 지역 대학가 청년들은 야간학교(야학)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산재 부당성 등을 교육했습니다. 이윽고

원유술 야고보 신부 퇴임 사진展




▲ 원유술 야고보 신부 퇴임 사진展 중 소신학교 등 학창시절 모습 ©원유술

국가의 주요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동운동, 노조활동은 ‘빨갱이’, ‘용공단체’로 몰렸습니다. 알몸수색도 당하고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 요원들이나 경찰과도 여러차례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용공단체’로 몰려 뉴스에 나오자 당시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 신부는 “알겠다, 그러면 나는 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따르지 않겠다, 소신껏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때부터 외골수 인생이 시작됐다”고 기억합니다. 이어 “나름대로 나팔바지도 입고 멋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노동자들의 실제 삶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1981년 5월 5.18운동 1년을 맞아 광주 시국미사에 참석해 제일 앞에 십자가를 들고 행진합니다. 이어 대구에서 처음으로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5.18 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사진전을 엽니다.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열사가 신군부의 강압 수사 중 고문 치사로 사망하자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2주간 단식투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킵니다. 이후 민족통일연대 등 40여개 NGO(시민단체)를 만들고, 협업하며 사회운동을 펼칩니다. 성당이 원천 봉쇄되면 거리로 나가 시국미사, 장례미사를 펼칩니다. 동료 사제들도 원 신부를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함세웅, 지학순 신부 등과 함께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정의구현사제단을 만들었습니다. 1세대 사제단은 그렇게 출범했습니다.

1987년 6.29민주화 선언으로 직선제가 되자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해 구소련으로 사목을 떠납니다. 러시아 사할린이 목적지였습니다. 근현대사 역사에서 러시아로 강제징용된 우리 동포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구에서 공산권으로 사목을 간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2년여만에 ‘성야고보성당’을 지어 15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1995년에 다시 고향 땅 대구로 돌아옵니다.

성김대건성당, 범어성당에 이어 경북 포항 오천성당, 죽도성당, 대구대교구 제4대 대리구장 등 경북에서도 12년을 보냅니다. 돌아온 한국은 떠날 때와는 영 판판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국민들의 삶은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1997년 IMF(외환위기)까지 터집니다.

그는 대구참여연대를 창립해 오래 공동대표를 맡습니다. 낙천낙선운동본부에서도 활동합니다. 6대 종단(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대표들을 모은 종교인평화회의도 만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장갑차 호순이 미군이 여중생 사망 사건 촛불집회, 2004년 이라크 파병반대 도보행진을 합니다. 이어 4대강 저지 대구생명평화미사를 했고, 포항환경운동연합도 창립합니다. 2013년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립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는 포항에서 자비로 북부해수욕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2023년 8월 7일에는 ‘친일매국 검찰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회복 월요시국기도회’에서 미사 주례를 맡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아픔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글은 평화뉴스에 2023년 12월 31일자로 게재된 기사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대구참여연대 제26차 정기총회 공고

일시: 2024년 2월 28일 (수) 저녁 7:00
장소: 추후공지

안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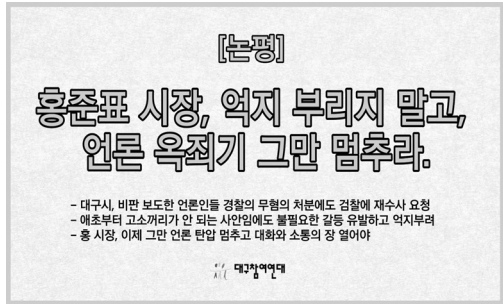
1. 2023년 사업보고 및 사업감사보고
2. 2023년 결산보고 및 회계감사보고
3. 2024년 사업계획안
4. 2024년 예산안
5. 2024년 임원선출안
6. 정관개정안
7. 기타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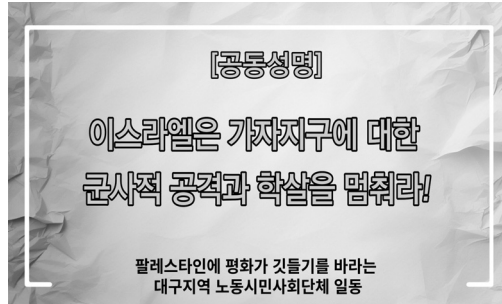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11~12월 활동소식)

- 11. 6 [연대행사] 세월호 간담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의미와 향후과제
- 11. 6 [청년기획] 청년정책 예산공부모임3차
- 11. 8 [공동성명]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불만과 피해, 업정 감사 촉구
- 11. 9 [공동기자회견]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11.10 [논평] 홍준표 시장, 억지 부리지 말고 언론 옥죄기 그만 멈추라
- 11.13 [공동성명]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화살을 멈춰라
- 11.13 [논평] 홍준표 시장 고발 사건 등 담당 기관의 늑장 처리 비판
- 11.13 [연대행사] 전태일 53주기 기념식 및 전태일 시집 발간 출판기념회 참석
- 11.13 [청년기획] 청년정책 예산공부모임 4차
- 11.15 [공동기자회견] 전세사기.강통전세 영남권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
- 11.15 [공동기자회견] 금호강 팔현습지 생태파괴 산책로 공사 조장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 11.17 [연대행사] 제15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참석
- 11.20 [청년기획] 청년정책 예산공부모임 5차
- 11.22 [연대행사]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
- 11.23 [보도자료] 2024년 대구시 청년예산 대폭삭감, 문제있다
- 11.24 [모임] 전.현직임원.활동가 저녁 모임
- 11.27 [청년기획] 청년정책 예산공부모임 6차
- 11.28 [성명] 중구의회, 의회 존립이유상실, 일괄 사퇴 재선출해야!
- 11.28 [연대활동] 새로운공공병원 세미나-울산의료원 설립운동 20년속에서 제2대구의료원설립을 모색한다
- 11.28 [연대행사] 대구경실련후원금행사참여
- 11.29 [성명] 거대양당은 망국적 선거법을 지금 당장 개혁하라
- 11.29 [회의] 참여자치연대 집행위 회의(온라인)
- 12.05 [기자회견] 전세사기대책위 대구 집회 참여
- 12.07 [성명] 노동자 생존 깃발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거부권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
- 12.08 [1인시위] 전세사기대책위 1인시위 참여
- 12.11 [공동성명]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선거제도 제대로 개혁하라
- 12.12 [연대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시도 규탄!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한다
- 12.13 [연대회의] 일본핵오염수방류반대 대책위 연대회의
- 12.14 [성명] 거대양당의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반대한다
- 12.19 [회의] 새로운공공병원대책위 집행위회의
- 12.20 [연대기자회견] 일본핵오염수방류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 12.22 [회의] 참여자치연대 집행위 회의(서울)
- 12.27 [기타] 원유술신부 44주년 은퇴 미사 참여
- 12.29 [종무식] 2022년 종무식 및 공간7549 송년회



11.10 [논평] 흥준표 시장, 억지 부리지 말고 언론 옥죄기 그만 멈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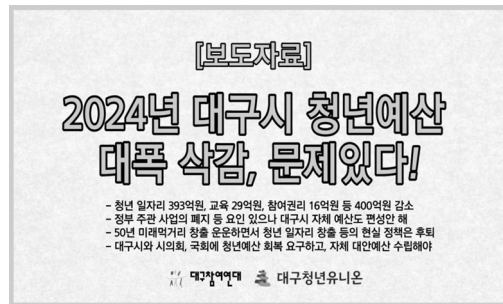
11.13 [공동성명]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학살을 멈춰라



11.15 [연대기자회견] 전세사기 강동전세 영남권 피해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11.15 [연대기자회견] 발현습지 생태파괴 산책로 공사 조장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11.23 [보도자료] 2024년 대구시 청년예산 대폭삭감, 문제있다



11.24 [모임] 전.현직임원.활동가 저녁 모임



11.12 [연대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시도 규탄



12.20 [연대기자회견] 일본핵오염수방류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2023년 11,12월 본부 재정운용결과

수 입					지 출					
항	목	2023년 11월	2023년 12월	12월기준 비율	항	목	2023년 11월	2023년 12월	12월기준 비율	
회비수입	일반자동이체회비	680,000	605,000	2.6%	인건비	급여	7,531,740	7,531,740	55.5%	
	CMS회비	7,069,000	7,026,000	30.4%		사회보험료	797,020	797,020	5.9%	
	연회비	-	-	0.0%		상여금	-	-	0.0%	
	평생회비	-	-	0.0%		퇴직급여	-	-	0.0%	
	소계	7,749,000	7,631,000	33.0%		소계	8,328,760	8,328,760	61.4%	
후원금 수입	일반후원금	250,000	150,000	0.6%	일반관리비	장기차입금상환	561,817	561,349	4.1%	
	사업후원금	-	-	0.0%		지급이자	2,344	2,812	0.0%	
	청년활동기금후원금	-	-	0.0%		사무실임차료	800,000	800,000	5.9%	
	해피빈모금	-	-	0.0%		정보통신비	219,907	177,318	1.3%	
	후원행사	14,400,000	6,150,000	26.6%		사무용품비	10,000	40,000	0.3%	
소계	14,650,000	6,300,000	27.2%	소모품비	-	36,160	0.3%			
기타수입	광고수입	-	8,000,000	34.6%	냉난방비	-	-	0.0%		
	이자수입	-	248	0.0%	도서구입비	138,000	20,000	0.1%		
	기타수입	200,000	1,200,000	5.2%	지급수수료	94,261	79,961	0.6%		
	소계	200,000	9,200,248	39.8%	수도광열비	65,550	120,000	0.9%		
사업수입	일반사업수입	-	-	0.0%	기타경비,세금	-	50,000	0.4%		
	명절수익사업수익	-	-	0.0%	소계	1,891,879	1,887,600	13.9%		
	기타사업수입	-	-	0.0%	홍보비	소식지발송비	285,000	5,400	0.0%	
	하계캠프수입	-	-	0.0%		소식지제작비	800,000	800,000	5.9%	
소계	-	-	0.0%	기타홍보비		-	-	0.0%		
차입금	단기차입금	-	-	0.0%	소계	1,085,000	805,400	5.9%		
	장기차입금	-	-	0.0%	사업집행비	연대사업비	420,000	200,000	1.5%	
	소계	-	-	0.0%		일반사업추진비	-	-	0.0%	
수입합계	22,599,000	23,131,248		회원조직사업추진비		482,000	220,000	1.6%		
	전월이월금	5,518,759	13,451,420			사업출장비	-	102,700		
		총 계	28,117,759	36,582,668		100.0%	후원행사비용	1,815,000	1,764,060	13.0%
			11월 재정 내역	12월 재정 내역		자동이체 회비	자동이체 52건 / 일반후원금 3건	자동이체 회비	자동이체 44건 / 일반후원금 2건	
						CMS 회비	468건	CMS 회비	468건	
						후원행사수입	85건(최병덕 외)	후원행사수입	21건(한유미 외)	
						일반사업수입		일반사업수입		
						기타수입	서울참여연대 임대료외	기타수입	서울참여연대 임대료, 사무실 그림 판매	
					사회보험료	10월분 사업자부담분	사회보험료	11월분 사업자부담분		
					장기차입금상환	10월분상환/ 이자비용 지급	장기차입금상환	11월분상환/ 이자비용 지급		
정보통신비					금융결제원, 인터넷, 전화	정보통신비	금융결제원, 인터넷, 전화			
연대사업비	참여자치연대 월회비,경실련, 우복연, 여성노동자회, 추모연대				연대사업비	참여자치연대 월회비,추모연대, 참여자치총회준비				
일반사업추진비		일반사업추진비								
회원조직사업비	오즈메일러이용료	회원조직사업비	오즈메일러이용료							
후원행사비용	사진대금, 전현직임원활동가 식대, 리플렛인쇄, 사진인쇄,기타잡비용	후원행사비용	사진액자비용, 기타잡비용구입							

※ 회원 · 시민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경달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박근식 강선구 강수영 강우진 강은수 강재기 강준구 강진효 강현구 경라운 고영문 고춘자 고한용
공정옥 광연하 광이화 광현수 구수용 구인호 권구형 권기동 권기혁 권대용 권덕기 권미숙 권상구 권석우 권영래 권영태 권옥자 권용현
권추경 권택홍 권혁장/추정화 권현준 권후선 금송민 김갑진 김건예 김건우 김건훈/김향미 김경근 김광석/이혜영 김규엽 김규중 김기용
김남수 김대균 김동명 김동식/박원영 김동용 김동창 김동현 김명환 김무락 김미경 김미정 김미수 김미정 김민서 김민재 김배
김병옥 김병하 김병혁 김병호 김보성 김보영 김보임 김봉심 김삼/한효정 김상숙 김상호 김석수 김선우 김선주 김성구 김성수 김성수
김성택 김수동 김수옥 김수정 김승규 김승옥 김승주 김신에 김신일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연희 김영록 김영문 김영숙 김영아 김영일
김영진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운상 김은경 김인하 김재승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민 김정화 김정희 김종록 김종봉 김주영 김주영
김주욱 김준호 김지연 김지일/박선영 김진숙 김진환 김채원 김철원 김태균 김태석 김태영 김태일 김혜원 김혜환/곽이화 김현희 김형섭
김형진 김효정 김효주 김희섭 김희운 김희진/변정호 나선단 남성욱 남영주 남채현 남호진 노경미 노연수(연푸드) 노태맹 노형석 노경화
도교동 도근환 도영주 도운백 류덕계 류소정 류영준 류영철 류지호 류태하 문영근 문용우 문종상 문창식 민정식 민혜진 박건상 박건욱
박경로 박경순 박경순 박경찬 박금동 박대희 박덕환 박명리 박명호 박선우 박성미 박성민 박성찬 박세정 박승일/이미숙 박시재 박신희
박영복 박옥순 박완솔 박은경(한국에드) 박은정 박은주 박인규 박인철 박재범/권미숙 박재일 박정권 박정민 박정호 박종률 박종률
박지용 박지운 박찬미 박찬영 박창호 박청진 박현탁 박호석 배갑기 배금정 배대환 배은경 배준석 백경록 백권기 백미숙 백차흠 변영숙
서대현 서덕교 서보경 서보성 서상득 서상민 서상철 서정옥 서준하 서준호 서창환 석민철 석성진 설동진 성상희 성언제 소영진 소유철
손명순 손상호 손성봉 손태운 손형민 송명수 송미진 송상욱 송성범 송윤식 송혜익 신기복 신기완 신도환 신동민 신동완/정희선 신동주
신동화 신득렬 신미숙 신미정 신성욱 신수정 신숙경 신숙희 신영숙 신유지 신윤정 신정석 신중석 신창섭 심승경 심윤철 안경환 안경욱
/박지선 안병화 안상진 안승택 안영배 안원기 안정임 안철택 안현수 양선진/임호성 양승문 양영일 양진오 양희 엄창욱 오문섭 오병현
오신택 오용태 오의식 오철희 오현주 우성문 우웅택 우장찬 원준호 유경진 유용준 윤명화 윤문주 윤병철 윤보옥 윤상호 윤성아 윤소원
윤윤희 윤재석 윤정호 윤종화 윤태자 이건희 이광모 이교희 이규호 이근호 이근덕 이금태 이기락 이기수 이남수 이동민 이동인 이동진
이동훈 이두욱 이만호 이명균 이명원 이명은 이미지 이병동 이상돈 이상목 이상수 이상술 이상원 이상원 이상훈 이석목 이선영 이선영
이성해 이성희 이소영 이순재 이승도 이승렬 이승수 이승연 이승익 이연주 이영운 이영희 이원배 이원준 이윤희 이은미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의호 이장근 이장환 이재남 이재문 이재성 이재욱 이재일 이재희 이점미 이정동 이정만 이정수 이정애 이정화 이종길 이종득
이종우 이종춘 이종필 이종희 이주영 이준우 이준홍 이진희 이창수 이창순 이창화 이창환 이천희 이철환 이태영 이태우 이풍탁 이현미
이현민 이현숙 이현욱 이형석 이흥기 이화선/정호태 이화정/최훈태 이효진 임성무 임순광 임은희 임종설 임향 임현수 임현태 장밖은
장성수 장영훈 장우영 장은우 장준현 장현주 장화환 전승훈 전창훈 전홍철 정강미 정강미 정경열 정규진 정길운 정대화 정상기 정선미
정수현 정승필 정애은 정용태 정용훈 정우근 정우달 정은정 정이섭 정재봉 정재영 정재형 정재훈 정지욱 정지혜 정창수 정현숙 정혜숙
정호원 조광진 조덕호 조병집 조영철 조영태 조용식 조재민 조현주 조희래 조희재 진금엽 진성섭 진수미 차광호 차우미 차정원 채장수
채장식 채형복 채취균 천덕우 천용길 최개천 최경미 최권오 최기현 최나래 최문석 최미나 최병덕 최병우 최병학 최병해 최상주 최선에
최신일 최연석 최용환 최우식 최유리 최은경 최재혁 최정욱 최종태 최철영 최현겸 최현진 최혜진 추정화 추호식 태찬인 하만호 하성협
하여선 하유신 한경국 한상훈 한승균 한승훈 한은영 한현희 허노목 허은경 허종 현호성 홍상익 홍상의 홍순표 홍영표 황상천 황순규
황순오 황양운

연회비 신순임 최명규

평생회원

원유술 김민남 법광 권홍락 김 미 김성희 김은주 김응곤 김영화 성상희 신숙경 이경옥 이종만 진미화 윤지현 이찬진

※ 위 명단은 2023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회비가 인출된 명단입니다. 이름 누락 등 기타 오류 발생 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함께 꾸는 꿈

(격월간 발행) 통권 146호 **2023** 11, 12월호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23년 12월 28일 통권 146호



발행처 ||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2층
전화 : 053) 427-9780~1
상담 : 053) 427-9788
팩스 : 053) 427-9723
홈페이지 : <http://www.civilpower.org>
전자우편 : dgpeople@gmail.com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공 동 대 표 || 엄창옥 이두옥 정혜숙 박경로
운 영 위 원 장 || 류영준
사 무 처 장 || 강금수
상 근 활 동 가 || 조영태 김선희

■ 풀뿌리주민자치

- 동구주민회

대표 : 박호석
운영위원장 : 양희
Add. 대구시 동구 입석로 96, 연우빌딩 2층
Cafe : <http://cafe.daum.net/dongjumin>

■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장 : 김형진
위원 : 강금수 조영태 정은정 김선희 장은우
편집담당 : 김형진

글로벌 대구대학교에서 드넓은 세상을 만나다

대구대학교는 전국 세 번째 큰 규모의 캠퍼스에 1만 6천 명의 재학생과 17만 명의 동문이 함께하는 학생 모집 규모 전국 10위권의 대형 대학입니다

- 01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부, 대학원) 한국어연수기관 선정 (2016~2023)
- 02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파란사다리' 사업 선정 (2018~2023)
- 03 전세계 35개국 420개 대학 및 기관과 학술 네트워크 구축
- 04 글로벌 브릿지 사업 연속 선정 (2012~현재)
- 05 53개국 1,575명 외국인 유학생 재학



대구대학교는 세계에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대구대학교 글로벌 라운지)





Go Beyond
IM DGB

새로운 시대
금융의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요?
지난 55년 동안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DGB 금융그룹이
금융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이제 돈을 넘어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금융으로
가진 것을 경쟁하던 시대를 넘어서
잘 사는 방법을 탐색하는 금융으로
나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는 금융으로

금융은 여기까지 라는 고정관념
그 한계를 DGB가 넘어서겠습니다.